

연구보고(수사과제)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책임연구원 : 정하성(한국청소년학 회장, 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우 룡(한국청소년학회 사무총장, 한국커뮤니티센터 소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범위	7
II.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이론적 배경	9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11
1)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11
2) 다문화가정의 유형	12
2. 다문화가정의 성립배경	13
III.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15
1. 다문화가정의 현황	17
2.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21
IV.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조사	2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및 고민사항	30
3.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	59
4. 가정생활	65
5. 학교생활	69
6. 지역사회생활	80
7. 문화여가생활	86
8. 미래의 모습 및 전망정도	92

V.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99
1.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101
2.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102
V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107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109
2.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111
VII. 결론 및 제언	117
1. 결 론	119
2. 제 언	121
※참고문헌	123
※부록: 설문지	125

표 목차

<표 1.1>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	6
<표 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념정의	12
<표 3.1> 외국인과의 혼인	17
<표 3.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18
<표 3.3>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19
<표 3.4>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20
<표 3.5>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별 혼인	20
<표 3.6> 다문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21
<표 4.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4.1.2>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존재유무 및 동거인 사항	28
<표 4.1.3>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학력사항	29
<표 4.1.4>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직업사항	30
<표 4.2.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	31
<표 4.2.2> 성별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	32
<표 4.2.3> 학력별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	33
<표 4.2.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	34
<표 4.2.5> 성별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	34
<표 4.2.6> 학력별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	35
<표 4.2.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외모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	36
<표 4.2.8> 성별 외모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	37
<표 4.2.9> 학력별 외모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	37

<표 4.2.10>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	38
<표 4.2.11> 성별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	39
<표 4.2.12> 학력별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	40
<표 4.2.13>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	41
<표 4.2.14> 성별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	41
<표 4.2.15> 학력별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	42
<표 4.2.16>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사회적 편견과 차별	43
<표 4.2.17> 성별 사회적 편견과 차별	44
<표 4.2.18> 학력별 사회적 편견과 차별	44
<표 4.2.19>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교육 및 공부하기	45
<표 4.2.20> 성별 교육 및 공부하기	46
<표 4.2.21> 학력별 교육 및 공부하기	47
<표 4.2.22>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친구사귀기	48
<표 4.2.23> 성별 친구사귀기	48
<표 4.2.24> 학력별 친구사귀기	49
<표 4.2.25>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언어 습득하기	50
<표 4.2.26> 성별 언어 습득하기	51
<표 4.2.27> 학력별 언어 습득하기	51
<표 4.2.28>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행동과 가치의 차이	52
<표 4.2.29> 성별 행동과 가치의 차이	53
<표 4.2.30> 학력별 행동과 가치의 차이	54
<표 4.2.3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인권침해	55
<표 4.2.32> 성별 인권침해	55
<표 4.2.33> 학력별 인권침해	56

<표 4.2.3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고민 및 걱정거리	57
<표 4.2.35> 성별 고민 및 걱정거리	58
<표 4.2.36> 학력별 고민 및 걱정거리	58
<표 4.3.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국가에 대한 소속감	59
<표 4.3.2> 성별 국가에 대한 소속감	60
<표 4.3.3> 학력별 국가에 대한 소속감	61
<표 4.3.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한국에 대한 만족도	62
<표 4.3.5> 성별 한국에 대한 만족도	62
<표 4.3.6> 학력별 한국에 대한 만족도	63
<표 4.3.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이민희망 여부	63
<표 4.3.8> 성별 이민희망 여부	64
<표 4.3.9> 학력별 이민희망 여부	65
<표 4.4.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가정생활 만족도	66
<표 4.4.2> 성별 가정생활 만족도	66
<표 4.4.3> 학력별 가정생활 만족도	67
<표 4.4.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부모와의 대화정도	68
<표 4.4.5> 성별 부모와의 대화정도	68
<표 4.4.6> 학력별 부모와의 대화정도	69
<표 4.5.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학교생활 만족도	70
<표 4.5.2>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70
<표 4.5.3> 학력별 학교생활 만족도	71
<표 4.5.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선생님과 대화정도	72
<표 4.5.5> 성별 선생님과 대화정도	72
<표 4.5.6> 학교별 선생님과 대화정도	73
<표 4.5.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친구와의 대화정도	74
<표 4.5.8> 성별 친구와의 대화정도	74
<표 4.5.9> 학력별 친구와의 대화정도	75
<표 4.5.10>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76

<표 4.5.11> 성별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76
<표 4.5.12> 학교별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77
<표 4.5.13>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78
<표 4.5.14> 성별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79
<표 4.5.15> 학력별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79
<표 4.6.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80
<표 4.6.2> 성별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81
<표 4.6.3> 학력별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81
<표 4.6.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이웃과의 관계정도	82
<표 4.6.5> 성별 이웃과의 관계정도	83
<표 4.6.6> 학력별 이웃과의 관계정도	83
<표 4.6.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마을행사 참여정도	84
<표 4.6.8> 성별 마을행사 참여정도	85
<표 4.6.9> 학력별 마을행사 참여정도	85
<표 4.7.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86
<표 4.7.2> 성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87
<표 4.7.3> 학력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88
<표 4.7.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	88
<표 4.7.5> 성별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	89
<표 4.7.6> 학력별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	90
<표 4.7.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91
<표 4.7.8> 성별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91
<표 4.7.9> 학력별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92
<표 4.8.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미래의 나의모습	92
<표 4.8.2> 성별 미래의 나의모습	93
<표 4.8.3> 학력별 미래의 나의모습	94
<표 4.8.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원하는 미래의 직업	95
<표 4.8.5> 성별 원하는 미래의 직업	95

<표 4.8.6> 학력별 원하는 미래의 직업	96
<표 4.8.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97
<표 4.8.8> 성별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98
<표 4.8.9> 학력별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98
<표 5.1>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 현황	101
<표 5.2> '06년 지자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현황	103

그림 목차

<도표 3.1>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1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화 시대가 진전되면서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의 흐름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도 급속히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2006)에 따르면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5년 74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 들어 불과 3개월 만에 6만여 명이 증가되어 2006년 3월말 현재 80만 명을 돌파하였고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당초 예상했던 2010년에서 2006년 말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순이며, 체류목적별로는 취업목적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이다. 특히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외국인배우자(외국국적 소지자)는 2001년 당시 2만5천 명이었던 것이 2006년 3월말 현재 7만7천여 명으로 무려 300%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의 이른바 국제결혼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출생 및 혼혈인도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 국제결혼가정들은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이나 혼혈(외모나 피부색깔)로 인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문제 등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들은 서로 인종적으로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의 문화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2006)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혼혈청소년들이 차별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펄벅재단 한국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혼혈아동의 학업중도 탈락률을 보면 일반학생은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가 하나도 없는 반면에 혼혈아동은 9.4%가 되고,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의 경우에도 일반학생이 1.1%임에 반해 17.5%나 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문제는 다른 청소년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 따돌림, 폭력,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 문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미약한 실정이므로 다인종·다문화시대에 있어서 한국사회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조사와 더불어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와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즉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논문과 전문도서, 각종 통계자료 등)자료를 조사하였다.

(2) 설문조사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조사대상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만8세~만19세)에 해당되는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총 120명으로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였다.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비율을 5:5로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중 기재가 부실하고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116부를 분석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35명), 안산(25명), 의정부(18명), 동두천(10명), 남양주(4명), 평택(2명), 대전(3명), 천안(3명), 옥천(2명), 부산(5명), 창원(6명), 마산(3명)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시설 및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질문지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였고, 각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토론과 조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본 질문지의 구성은 9개 영역(기본 인적사항, 가족사항, 문제점 및 고민사항, 국가에 대한 소속감 및 만족도,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화여가생활, 미래의 모습 및 전망정도)으로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1. 기본 인적사항	성별, 연령, 학교, 가정형편
2. 가족사항	부모유무, 동거인, 부모학력, 부모직업
3. 문제점 및 고민사항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점, 학교 및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점, 고민 및 걱정거리
4. 국가에 대한 소속감 및 만족도	한국에 대한 소속감, 한국에 대한 만족도, 이민 희망여부 등
5. 가정생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부모님과의 대화정도
6.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선생님과의 대화정도, 친구와의 대화정도,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7. 지역사회생활	마을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웃과의 관계정도, 마을행사 참여정도
8. 문화여가생활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동의 장애요인,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9. 미래의 모습 및 전망정도	미래의 나의모습, 원하는 미래의 직업,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③ 자료수집

본 조사에 앞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

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표집된 다문화가정 청소년 기관의 관계자를 통하여 각 청소년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질문지는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배부하고,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무응답 및 자료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하였다.

④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패키지인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를 크게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 12월부터 2007월 4월 30일까지였다.

(2)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하였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 관련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한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회 적응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한다.

Ⅱ.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2. 다문화가정의 성립배경

II.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1)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정은 학술적 용어로, 법률적 용어나 정의는 아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어온 국제결혼가정은 국적(國籍)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합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성연·최유, 2006).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국제결혼처럼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합된 가정의 형태를 혼혈가정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혼혈인가정과 그 2세인 혼혈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 차별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2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장려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고쳐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되어 왔다. 2003년에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다(한겨레신문 2003년 12월 3일자).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어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등 각종 관련단체에서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김갑성, 2006).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국제결혼가정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정을 포함시켜 부르는 용어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년은 <표 2.1>과 같이 다음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 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념정의

다문화가정	다문화청소년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가정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청소년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한국에 이주한 가정의 청소년

2) 다문화가정의 유형

다문화가정은 외국인근로자가정과 국제결혼가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외국인근로자가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김정원, 2006).

첫 번째 유형인 양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여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외국인근로자가정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데, 이때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 유형인 편모 혹은 편부 가정은 본국에서 부와 사별 또는 이혼한 후 모자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다가 자녀를 데리고 온 경우이거나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고 부나 모 혼자 한국에 남아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한국인과의 재혼가정이다. 재혼가정은 대부분 자녀와 함께 이주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경우이며, 그 역은 별로 없다. 이는 결혼을 위해 이주한 경우와는 구분되는 범주로서 본국에서 모가 부와 사별을 했거나 이혼한 후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인 부와 재혼한 경우이다.

② 국제결혼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과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통계청(2005)에 따르면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로서 100명 가운데 약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72%,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18%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의 성립배경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형성 패턴은 굴절된 현대사와 맥을 같이 한다(설동훈, 2006).

첫째, 1950~1970년대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주둔한 미군병사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들은 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하는 가정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 하였다. 미국의 풋볼 영웅 하인즈 워드의 가정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한국의 경제력이 신장된 198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한국인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 전문직 종사자와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 하였다.

셋째, 1980년대 말, 이른바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후 1990년대 초 국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5년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방문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1995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유형이 그 반대 유형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수많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80년대 말부터 국내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사례도 발견된다. 그 유형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차지한다.

Ⅲ.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1. 다문화가정의 현황
2.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Ⅲ.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1. 다문화가정 현황

1) 외국인과의 총 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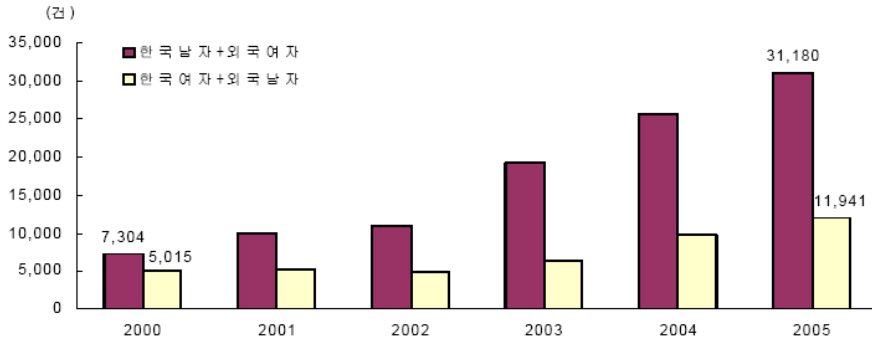
<표 3.1>과 같이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 외국 남성과의 결혼은 18%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결혼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총 43,121건으로 전년 35,447건에 비해 7,674건(21.6%) 증가하였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31,180건으로 전년대비 21.8% 증가 하였으며,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11,941건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하여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표 3.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3.7	4.8	5.2	8.4	11.4	13.6
증 가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증 감 률	26.5	37.0	10.1	74.4	33.2	21.8
■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증 감 률	4.6	4.2	-6.4	31.6	52.9	21.2

자료 : 통계청 (2006. 3), 『2005년 혼인·이혼통계결과』.

<도표 3.1>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2)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국적별 혼인은 <표 3.2>와 같이 총 31,180건으로, 중국 20,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 트 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 리 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1.1	34.8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 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자료 : 통계청 (2006. 3), 『2005년 혼인·이혼통계결과』.

<표 3.3>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

의 혼인은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 농림어업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35.9%)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하며, 농어촌의 새로운 가정유형으로 정착하였다. 다시 말해서 2005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종사자(남자) 8,027명 중 2,885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여 전년에 비해 1,071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외국 여자와의 혼인 31,180건의 9.3% 수준으로 전년 7.1%에 비해 2.2% 증가한 것이다.

<표 3.3>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단위 : 건, %)

구분	2004							2005						
	총혼인 (A)	외국녀 와혼인 남(B)	외국녀 와혼인 농림 남(D)	농림 남 (C)	구성 비 (D/B)	구성 비 (D/C)	구성 비 (C/A)	총혼인 (A)	외국녀 와혼인 남(B)	외국녀 와혼인 농림 남(D)	농림 남 (C)	구성 비 (D/B)	구성 비 (D/C)	구성 비 (C/A)
전국*	310,944	25,594	1,814	6,629	7.1	27.4	2.1	316,375	31,180	2,885	8,027	9.3	35.9	2.5
서울	71,553	6,565	33	103	0.5	32.0	0.1	71,286	7,637	46	129	0.6	35.7	0.2
부산	19,898	1,386	32	258	2.3	12.4	1.3	18,973	1,408	50	248	3.6	20.2	1.3
대구	13,792	826	15	63	1.8	23.8	0.5	13,152	1,014	39	83	3.8	47.0	0.6
인천	15,900	1,565	34	129	2.2	26.4	0.8	16,515	2,015	54	156	2.7	34.6	0.9
광주	8,012	545	13	67	2.4	19.4	0.8	7,827	498	23	64	4.6	35.9	0.8
대전	8,857	589	17	45	2.9	37.8	0.5	9,035	779	23	60	3.0	38.3	0.7
울산	6,647	363	18	51	5.0	35.3	0.8	6,939	560	25	59	4.5	42.4	0.9
경기	70,236	5,967	223	784	3.7	28.4	1.1	72,431	7,341	274	900	3.7	30.4	1.2
강원	8,235	611	108	399	17.7	27.1	4.8	8,496	769	166	505	21.6	32.9	5.9
충북	8,534	809	119	329	14.7	36.2	3.9	8,390	920	192	415	20.9	46.3	4.9
충남	11,418	1,027	243	842	23.7	28.9	7.4	12,107	1,378	370	894	26.9	41.4	7.4
전북	10,111	1,195	213	566	17.8	37.6	5.6	10,196	1,385	319	754	23.0	42.3	7.4
전남	9,675	1,030	269	975	26.1	27.6	10.1	9,984	1,327	428	1,088	32.3	39.3	10.9
경북	14,000	1,030	256	807	24.9	31.7	5.8	14,639	1,489	482	1,105	32.4	43.6	7.5
경남	18,375	1,077	168	680	15.6	24.7	3.7	18,664	1,636	338	844	20.7	40.0	4.5
제주	3,325	268	51	244	19.0	20.9	7.3	3,382	231	53	276	22.9	19.2	8.2

* 국외포함

자료 : 통계청(2006. 3), 『2005년 혼인·이혼통계결과』.

<표 3.4>와 같이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2004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나왔다.

<표 3.4>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단위 : 건)

국 적	2004					2005				
	계	베 트 남	중 국	필 리 핀	기 타	계	베 트 남	중 국	필 리 핀	기 타
건 수	1,814	560	879	195	180	2,885	1,535	984	198	168

자료 : 통계청(2006. 3), 『2005년 혼인·이혼통계결과』.

3)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혼인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국적별 혼인을 살펴보면 한국 여자와 중국 남자와의 혼인이 가장 많았다. 자세히 보면 <표 3.5>와 같이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중국 5,042건(42.2%), 일본 3,672건(30.8%), 미국 1,413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100.0	21.2
중 국	218	222	272	1,199	3,621	5,042	42.2	39.2
일 본	2,941	3,011	2,377	2,613	3,378	3,672	30.8	8.7
미 국	1,095	1,132	1,210	1,237	1,348	1,413	11.8	4.8
캐 나 다	149	164	174	223	230	285	2.4	23.9
방글라데시	16	38	46	158	186	252	2.1	35.5
파 키 스 탄	39	64	126	130	103	219	1.8	112.6
영 국	66	70	87	88	120	106	0.9	-11.7
호 주	74	79	89	108	136	102	0.9	-25.0
기 타	417	448	515	688	731	850	7.1	16.3

자료 : 통계청(2006. 3), 『2005년 혼인·이혼통계결과』.

2.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1) 다문화가구 현황

2006년 혼혈인 자녀, 외국인 배우자 등 다문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구 비율이 0.7%로 도시지역 0.3%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6〉 다문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단위: %)

구 분	계	다문화가구
전 국	100.0	0.4
도 시(동 부)	100.0	0.3
농어촌(읍면부)	100.0	0.7
남 자	100.0	0.4
여 자	100.0	0.3

자료 : 통계청(2006. 12),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부문)』.

2)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국제결혼가정 자녀

- 2006년 현재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7,998명(초85%, 중11.6%, 고 3.5%)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6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 자녀

- 법무부 등록 외국인 중 취학 연령대(7세~18세)는 17,287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일반학교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7,800명은 외국인학교 재학)
-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386명), 몽골 21.3%(338명), 미국 17.2%(273명), 중국 2.8%(4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서울 (35%), 경기(31%)지역 학교에 재학 중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지원대책 발표』.

(1)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교육부, '06.3.)

시도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서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756	148	77	981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485	94	30	609
부산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306	37	21	364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238	26	10	274
대구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158	22	10	190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42	14	4	160
인천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207	25	14	246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87	14	7	208
광주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118	8	7	133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04	7	5	116
대전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129	24	11	164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18	21	3	142
울산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75	15	5	9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70	12	4	86
경기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1,454	338	60	1,852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108	220	36	1,364
강원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398	40	10	448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60	38	8	406
충북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331	23	6	360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14	19	2	335

충남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464	53	15	532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415	48	12	475
전북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679	45	11	73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675	45	11	731
전남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878	54	15	947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851	50	15	916
경북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432	40	13	48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413	32	9	454
경남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357	49	4	410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39	41	3	383
제주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53	3	0	56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5	1	0	36
계	국제결혼가정 자녀수	6,795	924	279	7,998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5,854	682	159	6,695

(2) 학령기(초·중등) 등록 외국인 현황

○ 국가별 현황

(단위 : 명)

국가	초등	중등	합계
미국	4,156	3,758	7,914
타이완	1,665	1,808	3,473
일본	1,029	692	1,721
중국	100	739	839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132	441	573
캐나다	204	104	308
베트남	7	267	274
몽골	82	173	255
기타	1,150	780	1,930
전체	8,525	8,762	17,287

출처 : 법무부, 2005. 9.30 기준

○ 시도별 현황

(단위 : 명)

시도	초등	중등	합계
서울	4,061	3936	7,997
부산	476	527	1,003
대구	179	228	407
인천	374	406	780
광주	100	128	228
대전	350	410	760
울산	110	107	217
경기	1,866	1633	3,499
강원	128	134	262
충북	106	164	270
충남	174	222	396
전북	114	176	290
전남	54	127	181
경북	113	251	364
경남	239	218	457
제주	81	95	176
합계	8,525	8,762	17,287

출처 : 법무부, 2005. 9.30 기준

IV.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조사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및 고민사항
3.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
4. 가정생활
5. 학교생활
6. 지역사회생활
7. 문화여가생활
8. 미래의 모습 및 전망정도

IV.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적사항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표 4.1.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이 51.7%,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이 48.3%였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65.5%였으며 여자 청소년은 34.5%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9세~13세) 32.8%, 중학생(14세~16세) 37.9%, 고등학생(17세~19세) 29.3%였다. 한편 생활수준의 경우에는 ‘상’ 수준이 25.0%, ‘중’ 수준이 62.1%, ‘하’ 수준이 12.9%의 분포를 보였다.

<표 4.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60	51.7%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56	48.3%
	합 계	116	100.0%
성별	남자 청소년	76	65.5%
	여자 청소년	40	34.5%
	합 계	116	100.0%
학력별	초등학교	38	32.8%
	중학생	44	37.9%
	고등학생	34	29.3%
	합 계	116	100.0%
생활수준별	하 수준	15	12.9%
	중 수준	72	62.1%
	상 수준	29	25.0%
	합 계	116	100.0%

2) 가족사항

(1) 부모유무 및 동거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존재 유무를 살펴보면 <표 4.1.2>와 같이 두 분 모두 계신다가 69.8%, 어머니만 계신다는 23.3%, 두 분 모두 안 계신다는 4.3%, 아버지만 계신다는 2.6%로 나왔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81%)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부모님(또는 두 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6.9%에 불과 하였다.

<표 4.1.2>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존재유무 및 동거인 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부모유무	두 분 모두 계신다	81	69.8%
	아버지만 계신다	3	2.6%
	어머니만 계신다	27	23.3%
	두 분 모두 안 계신다	5	4.3%
	합 계	116	100.0%
동거인	부모님(또는 두 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94	81.0%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집 또는 형제들과 살고 있다	13	11.2%
	할아버지, 할머니(또는 두 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1	0.9%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8	6.9%
	합 계	116	100.0%

(2) 부모학력

<표 4.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졸(전문대졸 포함)이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도 대졸(전문대졸 포함)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김민정, 2006)조사 결과¹⁾와 거의 유사하다.

<표 4.1.3>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학력사항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학교를 안 다님	3	2.6%	1	0.9%
	초등졸	2	1.7%	1	0.9%
	중 졸	2	1.7%	8	6.9%
	고 졸	30	25.9%	29	25.0%
	대 졸(전문대졸 포함)	61	52.6%	60	51.7%
	대학원 이상	18	15.5%	17	14.7%
	합 계	116	100.0%	116	100.0%

(3) 부모직업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표 4.1.4>와 같이 아버지의 경우 50%가 공장 및 건설노동자, 자영업은 10.3%, 사무직은 8.6%, 전문직은 4.3%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경우에도 37.9%가 공장 및 건설노동자, 자영업이 14.7%, 전문직이 12.9%, 사무직이 8.4%, 서비스업 5.2% 순으로 나왔다.

본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직업은 대부분 공장 및 건설노동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김민정, 2006)조사 결과²⁾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1)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김민정, 2006)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버지 27.5%가 ‘고등학교 졸업’, 49.3%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32.9%가 ‘고등학교 졸업’, 34.3%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직업사항

구분		아버지		어머니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	전문직(의사, 교사 등)	5	4.3%	15	12.9%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사무원 등)	10	8.6%	10	8.6%
	공장 및 건설노동자	58	50.0%	44	37.9%
	군 인	3	2.6%	1	0.9%
	연예인	0	0.0%	1	0.9%
	자영업(상점, 식당 경영 등)	12	10.3%	17	14.7%
	농업·임업·어업	0	0.0%	2	1.7%
	서비스업 및 야간업소 관련 일	2	1.7%	6	5.2%
	가정주부	0	0.0%	3	2.6%
	무직 및 기타	26	22.4%	17	14.7%
	합 계	116	100.0%	95	100.0%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및 고민사항

1)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점

(1)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외모로 인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표 4.2.1>과 같이 친구로부터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은 14.6%(그렇다 11.2%, 매우 그렇다 3.4%)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놀림과 따돌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57.8%(그렇지 않다 27.6%, 전혀 그렇지 않다 30.2%)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외모로 인한 친구

- 2)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김민정, 2006)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아버지들은 40.0%가 ‘사무직’, 10.0%가 ‘전문직’, 10%가 ‘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의 경우, 50.0%가 ‘가정주부’, 17.1%가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들의 놀림과 따돌림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크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일부 소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외모로 인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를 분석해 보면 <표 4.2.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다(31.7%)’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5.7%)’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8.3%로써 3.6%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외모로 인한 친구로부터의 놀림과 따돌림 문제는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15	19	14	11	1	60	9.433*
	가정 청소년	백분율	25.0%	31.7%	23.3%	18.3%	1.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20	13	18	2	3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35.7%	23.2%	32.1%	3.6%	5.4%	100.0%	
전 체		빈 도	35	32	32	13	4	116	
		백분율	30.2%	27.6%	27.6%	11.2%	3.4%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2>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32.9%)’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5%)’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외모로 인한 친구로부터 놀림과 따돌

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5%로써 2.6%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성별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5	18	22	9	2	76	2.411
		백분율	32.9%	23.7%	28.9%	11.8%	2.6%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0	14	10	4	2	40	
		백분율	25.0%	35.0%	25.0%	10.0%	5.0%	100.0%	
전 체		빈 도	35	32	32	13	4	116	
		백분율	30.2%	27.6%	27.6%	11.2%	3.4%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3>과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보통이다(34.2%)’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학생은 ‘그렇지 않다(34.1%)’가,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2.4%로써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외모로 인한 친구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5.3%, 중학생이 4.5%, 고등학생이 0%로써 대체적으로 연령 낮은 저학년의 학생에게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3> 학력별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0	6	13	7	2	38	14.679
		백분율	26.3%	15.8%	34.2%	18.4%	5.3%	100.0%	
	중학생	빈 도	14	15	13	0	2	44	
		백분율	31.8%	34.1%	29.5%	0.0%	4.5%	100.0%	
	고등학생	빈 도	11	11	6	6	0	34	
		백분율	32.4%	32.4%	17.6%	17.6%	0.0%	100.0%	
전 체		빈 도	35	32	32	13	4	116	
		백분율	30.2%	27.6%	27.6%	11.2%	3.4%	100.0%	

(2)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4.2.4>와 같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응답은 16.4%(그렇다 14.7%, 매우 그렇다 1.7%)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64.6%(그렇지 않다 31%, 전혀 그렇지 않다 33.6%)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일부 소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를 분석해 보면 <표 4.2.4>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35%)’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3.9%)’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8.3%로써 10.7%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

구 분			나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21	17	10	11	1	60	1.859
		백분율	35.0%	28.3%	16.7%	18.3%	1.7%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18	19	12	6	1	56	
		백분율	32.1%	33.9%	21.4%	10.7%	1.8%	100.0%	
전 체		빈 도	39	36	22	17	2	116	
		백분율	33.6%	31.0%	19.0%	14.7%	1.7%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5>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31.6%)’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7.5%로써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17.1%로써 10%인 여자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5> 성별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

구 분			나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4	21	17	13	1	76	3.557
		백분율	31.6%	27.6%	22.4%	17.1%	1.3%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5	15	5	4	1	40	
		백분율	37.5%	37.5%	12.5%	10.0%	2.5%	100.0%	
전 체		빈 도	39	36	22	17	2	116	
		백분율	33.6%	31.0%	19.0%	14.7%	1.7%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6>과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39.5%)’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학생은 ‘그렇지 않다(34.1%)’와 ‘전혀 그렇지 않다(34.1%)’가,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38.2%)’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7.9%, 중학생이 13.6%, 고등학생이 23.5%로써 대체적으로 연령 높은 고학년의 학생에게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6> 학력별 학교나 학원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여부

구 분			나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5	8	10	3	2	38	12.007
		백분율	39.5%	21.1%	26.3%	7.9%	5.3%	100.0%	
	중학생	빈 도	15	15	8	6	0	44	
		백분율	34.1%	34.1%	18.2%	13.6%	0.0%	100.0%	
	고등학생	빈 도	9	13	4	8	0	34	
		백분율	26.5%	38.2%	11.8%	23.5%	0.0%	100.0%	
전 체		빈 도	39	36	22	17	2	116	
		백분율	33.6%	31.0%	19.0%	14.7%	1.7%	100.0%	

(3) 외모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외모로 인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표 4.2.7>과 같이 이웃으로부터 외모로 인한 수군거림과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은 매우 낮은 12%(그렇다 10.3%, 매우 그렇다 1.7%)에 불과한 반면에 수군거림과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69%(그렇지 않다 29.3%, 전혀 그렇지 않다 39.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외모로 인한 이웃들의 놀림과 따돌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외모에 대한 이웃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를 분석해 보면 <표 4.2.7>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웃들로부터 수군거림과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44.6%로써 35%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외모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이웃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21	17	15	6	1	60	3.123	
	가정 청소년	백분율	35.0%	28.3%	25.0%	10.0%	1.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25	17	7	6	1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44.6%	30.4%	12.5%	10.7%	1.8%	100.0%		
전 체			빈 도	46	34	22	12	2	116	
			백분율	39.7%	29.3%	19.0%	10.3%	1.7%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8>과 같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웃들로부터 수군거림과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20%로써 5.3%인 남자 청소년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외모로 인한 이웃들로부터의 수군거림과 차별 문제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8> 성별 외모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이웃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8	24	18	4	2	76	9.969*
		백분율	36.8%	31.6%	23.7%	5.3%	2.6%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8	10	4	8	0	40	
		백분율	45.0%	25.0%	10.0%	20.0%	0.0%	100.0%	
전 체		빈 도	46	34	22	12	2	116	
		백분율	39.7%	29.3%	19.0%	10.3%	1.7%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9>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웃들로부터 외모로 인한 수군거림과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13.2%, 중학생이 11.4%, 고등학생이 5.9%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연령 낮은 저학년의 학생에게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9> 학력별 외모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차별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이웃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4	12	5	5	2	38	8.605
		백분율	36.8%	31.6%	13.2%	13.2%	5.3%	100.0%	
	중학생	빈 도	18	14	7	5	0	44	
		백분율	40.9%	31.8%	15.9%	11.4%	0.0%	100.0%	
	고등학생	빈 도	14	8	10	2	0	34	
		백분율	41.2%	23.5%	29.4%	5.9%	0.0%	100.0%	
전 체		빈 도	46	34	22	12	2	116	
		백분율	39.7%	29.3%	19.0%	10.3%	1.7%	100.0%	

(4)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4.2.10>과 같이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은 12.9%(그렇다 14.7%, 매우 그렇다 1.7%)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73.9%(그렇지 않다 31.9%, 전혀 그렇지 않다 42.2%)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를 분석해 보면 <표 4.2.10>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4.3%로써 8.3%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10>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

구 분			내가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23	22	10	5	0	60	5.736
		백분율	38.3%	36.7%	16.7%	8.3%	0.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26	15	5	8	2	56	
		백분율	46.4%	26.8%	8.9%	14.3%	3.6%	100.0%	
전 체		빈 도	49	37	15	13	2	116	
		백분율	42.2%	31.9%	12.9%	11.2%	1.7%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11>과 같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13.2%로써 7.5%인 여자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11> 성별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

구 분			내가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7	24	13	10	2	76	7.131
		백분율	35.5%	31.6%	17.1%	13.2%	2.6%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22	13	2	3	0	40	
		백분율	55.0%	32.5%	5.0%	7.5%	0.0%	100.0%	
전 체		빈 도	49	37	15	13	2	116	
		백분율	42.2%	31.9%	12.9%	11.2%	1.7%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12>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길거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10.5%, 중학생이 13.6%, 고등학생이 8.8%로써 대체적으로 연령 낮은 저학년의 학생에게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2> 학력별 길거리에서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여부

구 분			내가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린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7	10	5	4	2	38	6.345
		백분율	44.7%	26.3%	13.2%	10.5%	5.3%	100.0%	
	중학생	빈 도	18	16	4	6	0	44	
		백분율	40.9%	36.4%	9.1%	13.6%	0.0%	100.0%	
	고등학생	빈 도	14	11	6	3	0	34	
		백분율	41.2%	32.4%	17.6%	8.8%	0.0%	100.0%	
전 체		빈 도	49	37	15	13	2	116	
		백분율	42.2%	31.9%	12.9%	11.2%	1.7%	100.0%	

(5)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외모로 인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표 4.2.13>과 같이 친척들로부터 외모로 인한 놀림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은 매우 낮은 1.8%(그렇다 0.9%, 매우 그렇다 0.9%)에 불과한 반면에 놀림과 수군거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91.4%(그렇지 않다 25%, 전혀 그렇지 않다 66.4%)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외모로 인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문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를 분석해 보면 <표 4.2.13>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들로부터 놀림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이 0%,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이 1.7%로 나왔다. 즉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이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3>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놀림이나 수군거림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32	20	7	1	0	60	12.744**
	가정 청소년	백분율	53.3%	33.3%	11.7%	1.7%	0.0%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45	9	1	0	1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80.4%	16.1%	1.8%	0.0%	1.8%	100.0%	
전 체		빈 도	77	29	8	1	1	116	
		백분율	66.4%	25.0%	6.9%	0.9%	0.9%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14>와 같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들로부터 놀림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이 1.3%, 여자 청소년이 0%로 나왔다. 즉 남녀 청소년들 모두에게 외모로 인한 친척들로부터의 놀림과 수군거림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4> 성별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놀림이나 수군거림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43	24	7	1	1	76	9.769*
		백분율	56.6%	31.6%	9.2%	1.3%	1.3%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34	5	1	0	0	40	
		백분율	85.0%	12.5%	2.5%	0.0%	0.0%	100.0%	
전 체		빈 도	77	29	8	1	1	116	
		백분율	66.4%	25.0%	6.9%	0.9%	0.9%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15>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친척들로부터 놀림과 수군거림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0%, 고등학생은 2.9%로 나타났다. 즉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외모로 인한 친척들로부터의 놀림과 수군거림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5> 학력별 외모에 대한 친척들의 놀림과 수군거림 여부

구 분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놀림이나 수군거림을 받은 적이 있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27	7	3	0	1	38	9.762
		백분율	71.1%	18.4%	7.9%	0.0%	2.6%	100.0%	
	중학생	빈 도	32	11	1	0	0	44	
		백분율	72.7%	25.0%	2.3%	0.0%	0.0%	100.0%	
	고등학생	빈 도	18	11	4	1	0	34	
		백분율	52.9%	32.4%	11.8%	2.9%	0.0%	100.0%	
전 체		빈 도	77	29	8	1	1	116	
		백분율	66.4%	25.0%	6.9%	0.9%	0.9%	100.0%	

2) 학교 및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운 점

(1) 사회적 편견과 차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가를 조사해 본 결과 <표 4.2.16>과 같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은 8.6%(그렇다 8.6%)로 아주 낮게 나타난 반면에 힘들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56.1%(그렇지 않다 25.9%, 전혀 그렇지 않다 30.2%)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든가를 분석해 보면 <표 4.2.16>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모두의 경우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6.7%로써 0%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6>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사회적 편견과 차별

구 분			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16	13	21	10	60	24.012***
	가정 청소년	백분율	26.7%	21.7%	35.0%	16.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19	17	20	0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33.9%	30.4%	35.7%	0.0%	100.0%	
전 체		빈 도	35	30	41	10	116	
		백분율	30.2%	25.9%	35.3%	8.6%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17>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보통이다(47.4%)’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5%)’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10%로써 7.9%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7> 성별 사회적 편견과 차별

구 분			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17	17	36	6	76	20.174***
		백분율	22.4%	22.4%	47.4%	7.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8	13	5	4	40	
		백분율	45.0%	32.5%	12.5%	10.0%	100.0%	
전 체		빈 도	35	30	41	10	116	
		백분율	30.2%	25.9%	35.3%	8.6%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18>과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보통이다(52.6%)’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38.6%)’가,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44.1%)’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이 23.5%, 중학생이 4.5%, 초등학생은 0%로 순으로 나왔다. 대체적으로 연령 높은 고학년의 학생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8> 학력별 사회적 편견과 차별

구 분			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4	4	20	0	38	14.205
		백분율	36.8%	10.5%	52.6%	0.0%	100.0%	
	중학생	빈 도	17	11	14	2	44	
		백분율	38.6%	25.0%	31.8%	4.5%	100.0%	
	고등학생	빈 도	4	15	7	8	34	
		백분율	11.8%	44.1%	20.6%	23.5%	100.0%	
전 체		빈 도	35	30	41	10	116	
		백분율	30.2%	25.9%	35.3%	8.6%	100.0%	

(2) 교육 및 공부하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교육받기와 공부하기가 어려운가를 물어본 결과 <표 4.2.19>와 같이 교육 및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응답은 17.3%(그렇다 14.7%, 매우 그렇다 2.6%)로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에 어렵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61.2%(그렇지 않다 25.9%, 전혀 그렇지 않다 35.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육 및 공부하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교육받기와 공부하기가 힘든지를 분석해 보면 <표 4.2.19>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및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23.3%로써 5.4%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교육 및 공부하기를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19>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교육 및 공부하기

구 분			나는 교육 받기와 공부하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16	15	12	14	3	60	12.010**
	가정 청소년	백분율	26.7%	25.0%	20.0%	23.3%	5.0%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25	15	13	3	0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44.6%	26.8%	23.2%	5.4%	0.0%	100.0%	
전 체		빈 도	41	30	25	17	3	116	
		백분율	35.3%	25.9%	21.6%	14.7%	2.6%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20>과 같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15.8%로써 12.5%인 여자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교육 및 공부하기를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0> 성별 교육 및 공부하기

구 분			나는 교육 받기와 공부하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4	17	20	12	3	76	6.018
		백분율	31.6%	22.4%	26.3%	15.8%	3.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7	13	5	5	0	40	
		백분율	42.5%	32.5%	12.5%	12.5%	0.0%	100.0%	
전 체		빈 도	41	30	25	17	3	116	
		백분율	35.3%	25.9%	21.6%	14.7%	2.6%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21>과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이 5.9%, 중학생이 2.3%, 초등학생은 0% 순으로 나왔다. 대체적으로 연령 높은 고학년의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1> 학력별 교육 및 공부하기

구 분			나는 교육 받기와 공부하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3	10	11	4	0	38	12.828
		백분율	34.2%	26.3%	28.9%	10.5%	0.0%	100.0%	
	중학생	빈 도	21	10	8	4	1	44	
		백분율	47.7%	22.7%	18.2%	9.1%	2.3%	100.0%	
	고등학생	빈 도	7	10	6	9	2	34	
		백분율	20.6%	29.4%	17.6%	26.5%	5.9%	100.0%	
전 체		빈 도	41	30	25	17	3	116	
		백분율	35.3%	25.9%	21.6%	14.7%	2.6%	100.0%	

(3) 친구사귀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친구사귀기가 어떤지를 물어본 결과 <표 4.2.22>와 같이 친구사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은 31%(그렇다 19.8%, 매우 그렇다 11.2%)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어렵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45.7%(그렇지 않다 21.6%, 전혀 그렇지 않다 24.1%)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친구사귀기가 어렵지 않지만 일부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사귀기가 어려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친구사귀기가 힘든가를 분석해 보면 <표 4.2.22>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2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통이다(28.6%)’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친구사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25%로써 14.3%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친구사귀기를 더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2>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친구사귀기

구 분			나는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17	13	11	15	4	60	6.175
	가정 청소년	백분율	28.3%	21.7%	18.3%	25.0%	6.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11	12	16	8	9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19.6%	21.4%	28.6%	14.3%	16.1%	100.0%	
전 체		빈 도	28	25	27	23	13	116	
		백분율	24.1%	21.6%	23.3%	19.8%	11.2%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23>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27.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0%)’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친구사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22.5%로써 5.3%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친구사귀기를 더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3> 성별 친구사귀기

구 분			나는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16	16	21	19	4	76	12.613**
		백분율	21.1%	21.1%	27.6%	25.0%	5.3%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2	9	6	4	9	40	
		백분율	30.0%	22.5%	15.0%	10.0%	22.5%	100.0%	
전 체		빈 도	28	25	27	23	13	116	
		백분율	24.1%	21.6%	23.3%	19.8%	11.2%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24>와 같이 초등학생은 ‘보통이다(31.6%)’가, 중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34.1%)’가,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26.5%)’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한편 친구사귀기가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이 23.5%, 초등학생이 18.4%, 중학생이 18.2% 순으로 나왔다.

<표 4.2.24> 학력별 친구사귀기

구 분			나는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6	8	12	7	5	38	6.085
		백분율	15.8%	21.1%	31.6%	18.4%	13.2%	100.0%	
	중학생	빈 도	15	8	9	8	4	44	
		백분율	34.1%	18.2%	20.5%	18.2%	9.1%	100.0%	
	고등학생	빈 도	7	9	6	8	4	34	
		백분율	20.6%	26.5%	17.6%	23.5%	11.8%	100.0%	
전 체		빈 도	28	25	27	23	13	116	
		백분율	24.1%	21.6%	23.3%	19.8%	11.2%	100.0%	

(4) 언어 습득하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떤지를 물어본 결과 <표 4.2.25>와 같이 언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은 19.8%(그렇다 12.9%, 매우 그렇다 6.9%)로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에 어렵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56.7%(그렇지 않다 31%, 전혀 그렇지 않다 26.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한글 및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지 않지만 일부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언어 습득하기가 어려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언어 습득하기가 힘든가를 분석해 보면 <표 4.2.25>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다(3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5.7%)’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언어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

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1.7%로써 1.8%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언어 습득하기를 더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5>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언어 습득하기

구 분			나는 언어(한글,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11	19	10	13	7	60	16.557**
	가정 청소년	백분율	18.3%	31.7%	16.7%	21.7%	11.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20	17	16	2	1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35.7%	30.4%	28.6%	3.6%	1.8%	100.0%	
전 체		빈 도	31	36	26	15	8	116	
		백분율	26.7%	31.0%	22.4%	12.9%	6.9%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26>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다 (35.5%)’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47.5%)’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언어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10.5%로써 0%인 여자 청소년들 보다 아주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언어 습득하기를 매우 어려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6> 성별 언어 습득하기

구 분			나는 언어(한글,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12	27	21	8	8	76	19.167***
		백분율	15.8%	35.5%	27.6%	10.5%	10.5%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9	9	5	7	0	40	
		백분율	47.5%	22.5%	12.5%	17.5%	0.0%	100.0%	
전 체		빈 도	31	36	26	15	8	116	
		백분율	26.7%	31.0%	22.4%	12.9%	6.9%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27>과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이다(31.6%)’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38.6%)’가,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38.2%)’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언어 습득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매우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이 17.6%, 중학생이 4.5%, 초등학교는 0% 순으로 나왔다. 대체적으로 연령 높은 고학년의 학생들이 언어 습득하기를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7> 학력별 언어 습득하기

구 분			나는 언어(한글,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0	9	12	7	0	38	18.824**
		백분율	26.3%	23.7%	31.6%	18.4%	0.0%	100.0%	
	중학생	빈 도	17	14	7	4	2	44	
		백분율	38.6%	31.8%	15.9%	9.1%	4.5%	100.0%	
	고등학생	빈 도	4	13	7	4	6	34	
		백분율	11.8%	38.2%	20.6%	11.8%	17.6%	100.0%	
전 체		빈 도	31	36	26	15	8	116	
		백분율	26.7%	31.0%	22.4%	12.9%	6.9%	100.0%	

(5) 행동과 가치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지를 조사해 본 결과 <표 4.2.28>과 같이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은 19%(그렇다 18.1%, 매우 그렇다 0.9%)로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에 힘들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56.9%(그렇지 않다 26.7%, 전혀 그렇지 않다 30.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행동과 가치의 차이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든지를 분석해 보면 <표 4.2.28>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그렇다(35%)’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2.9%)’가 가장 높게 나왔다. 즉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8>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행동과 가치의 차이

구 분			나는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11	14	14	21	0	60	27.013***
		백분율	18.3%	23.3%	23.3%	35.0%	0.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24	17	14	0	1	56	
		백분율	42.9%	30.4%	25.0%	0.0%	1.8%	100.0%	
전 체		빈 도	35	31	28	21	1	116	
		백분율	30.2%	26.7%	24.1%	18.1%	0.9%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29>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다(30.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2.5%)’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21.1%로써 12.5%인 여자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29> 성별 행동과 가치의 차이

구 분			나는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18	23	18	16	1	76	5.712
		백분율	23.7%	30.3%	23.7%	21.1%	1.3%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7	8	10	5	0	40	
		백분율	42.5%	20.0%	25.0%	12.5%	0.0%	100.0%	
전 체		빈 도	35	31	28	21	1	116	
		백분율	30.2%	26.7%	24.1%	18.1%	0.9%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30>과 같이 초등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34.2%)’가, 중학생은 ‘그렇지 않다(34.1%)’가,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다(2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21.1%, 고등학생이 17.6%, 중학생이 15.9% 순으로 나왔다.

<표 4.2.30> 학력별 행동과 가치의 차이

구 분			나는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3	6	11	8	0	38	6.078
		백분율	34.2%	15.8%	28.9%	21.1%	0.0%	100.0%	
	중학생	빈 도	13	15	8	7	1	44	
		백분율	29.5%	34.1%	18.2%	15.9%	2.3%	100.0%	
	고등학생	빈 도	9	10	9	6	0	34	
		백분율	26.5%	29.4%	26.5%	17.6%	0.0%	100.0%	
전 체		빈 도	35	31	28	21	1	116	
		백분율	30.2%	26.7%	24.1%	18.1%	0.9%	100.0%	

(6) 인권침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인권침해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지를 조사해 본 결과 <표 4.2.31>과 같이 인권침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은 아주 낮은 6.9%(그렇다 6%, 매우 그렇다 0.9%)에 불과한 반면에 힘들지 않다고 하는 응답은 59.5%(그렇지 않다 22.4%, 전혀 그렇지 않다 3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인권침해 때문에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든지를 분석해 보면 <표 4.2.3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40%)’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4.6%)’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인권침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7.1%로써 5%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보다는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인권침해 때

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3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인권침해

구 분			나는 인권침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형별	국제결혼	빈 도	18	15	24	3	0	60	4.843
	가정 청소년	백분율	30.0%	25.0%	40.0%	5.0%	0.0%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25	11	15	4	1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44.6%	19.6%	26.8%	7.1%	1.8%	100.0%	
전 체		빈 도	43	26	39	7	1	116	
		백분율	37.1%	22.4%	33.6%	6.0%	0.9%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32>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44.7%)’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57.5%)’가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인권침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7.5%로써 5.3%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이 인권침해 때문에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32〉 성별 인권침해

구 분			나는 인권침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0	17	34	4	1	76	15.719**
		백분율	26.3%	22.4%	44.7%	5.3%	1.3%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23	9	5	3	0	40	
		백분율	57.5%	22.5%	12.5%	7.5%	0.0%	100.0%	
전 체		빈 도	43	26	39	7	1	116	
		백분율	37.1%	22.4%	33.6%	6.0%	0.9%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33>과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생은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침해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응답인 ‘그렇다’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이 8.8%, 초등학생이 5.3%, 중학생이 4.5% 순으로 나왔다.

<표 4.2.33> 학력별 인권침해

구 분			나는 인권침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전 체	χ^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력별	초등학생	빈 도	14	9	12	2	1	38	5.489
		백분율	36.8%	23.7%	31.6%	5.3%	2.6%	100.0%	
	중학생	빈 도	20	8	14	2	0	44	
		백분율	45.5%	18.2%	31.8%	4.5%	0.0%	100.0%	
	고등학생	빈 도	9	9	13	3	0	34	
		백분율	26.5%	26.5%	38.2%	8.8%	0.0%	100.0%	
전 체		빈 도	43	26	39	7	1	116	
		백분율	37.1%	22.4%	33.6%	6.0%	0.9%	100.0%	

3) 고민 및 걱정거리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표 4.2.34>와 같이 공부·학업문제 39.7%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언어(말투, 말씨, 한글 등)문제 14.7%, 직업이나 진로문제 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놀림과 따돌림 7.6%와 외모문제는 6.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다문화청소년의 고민 및 걱정거리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고민 및 걱정거리를 분석해 보면 <표 4.2.34>

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공부 및 학업문제(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 및 진로문제(13.3%)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부·학업문제(46.4%)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언어문제(17.9%)가 높게 나왔다.

<표 4.2.3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고민 및 걱정거리

구 분			귀하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놀림 과 따돌림	공부 및 학업 문제	친구 및 이성 문제	돈 및 경제 적 문제	대인 관계 및 성격 문제	직업 및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외모 문제 (키, 얼굴, 등)	언어 문제 (말투, 말씨, 한글 등)	기 타		
유 형 별	국제결혼	빈 도	6	20	2	5	4	8	2	5	7	1	60	8.957
	가정 청소년	백분율	10.0%	33.3%	3.3%	8.3%	6.7%	13.3%	3.3%	8.3%	11.7%	1.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3	26	1	1	4	3	2	3	10	3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5.4%	46.4%	1.8%	1.8%	7.1%	5.4%	3.6%	5.4%	17.9%	5.4%	100.0%	
전 체		빈 도	9	46	3	6	8	11	4	8	17	4	116	
		백분율	7.8%	39.7%	2.6%	5.2%	6.9%	9.5%	3.4%	6.9%	14.7%	3.4%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2.35>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부 및 학업 문제(43.4%)가 가장 큰 고민 및 걱정거리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언어문제(13.2%)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부 및 학업문제(32.5%)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언어문제(17.5%)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2.35〉 성별 고민 및 걱정거리

구 분			귀하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놀림 과 따돌림	공부 및 학업 문제	친구 및 이성 문제	돈 및 경제 적 문제	대인 관계 및 성격 문제	직업 및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외모 문제 (키, 얼굴, 등)	언어 문제 (말투, 말씨, 한글 등)	기 타		
성 별	남자	빈 도	9	33	0	6	7	7	0	3	10	1	76	29.735***
	청소년	백분율	11.8%	43.4%	0.0%	7.9%	9.2%	9.2%	0.0%	3.9%	13.2%	1.3%	100.0%	
	여자	빈 도	0	13	3	0	1	4	4	5	7	3	40	
	청소년	백분율	0.0%	32.5%	7.5%	0.0%	2.5%	10.0%	10.0%	12.5%	17.5%	7.5%	100.0%	
전 체		빈 도	9	46	3	6	8	11	4	8	17	4	116	
		백분율	7.8%	39.7%	2.6%	5.2%	6.9%	9.5%	3.4%	6.9%	14.7%	3.4%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2.36>과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공부 및 학업문제(4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놀림과 따돌림(18.4%)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공부 및 학업문제(40.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으로는 언어문제(18.2%)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공부 및 학업문제(35.3%)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그 다음으로는 직업 및 진로문제(14.7%)가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 모두는 학업 및 공부문제를 자신들의 가장 큰 고민 및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4.2.36〉 학력별 고민 및 걱정거리

구 분			귀하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놀림 과 따돌림	공부 및 학업 문제	친구 및 이성 문제	돈 및 경제 적 문제	대인 관계 및 성격 문제	직업 및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외모 문제 (키, 얼굴, 등)	언어 문제 (말투, 말씨, 한글 등)	기 타		
학 력 별	초등 학생	빈 도	7	16	0	3	2	1	2	1	4	2	38	35.689**
		백분율	18.4%	42.1%	0.0%	7.9%	5.3%	2.6%	5.3%	2.6%	10.5%	5.3%	100.0%	
	중학생	빈 도	2	18	0	0	3	5	0	7	8	1	44	
		백분율	4.5%	40.9%	0.0%	0.0%	6.8%	11.4%	0.0%	15.9%	18.2%	2.3%	100.0%	
	고등 학생	빈 도	0	12	3	3	3	5	2	0	5	1	34	
		백분율	0.0%	35.3%	8.8%	8.8%	8.8%	14.7%	5.9%	0.0%	14.7%	2.9%	100.0%	
전 체		빈 도	9	46	3	6	8	11	4	8	17	4	116	
		백분율	7.8%	39.7%	2.6%	5.2%	6.9%	9.5%	3.4%	6.9%	14.7%	3.4%	100.0%	

3.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

1) 국가에 대한 소속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자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표 4.3.1>과 같이 56.9%가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9.5%만이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김민정, 2006)조사 결과³⁾와는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분석해 보면 <표 4.3.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나는 외국인이다(4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33.3%)’가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도 ‘나는 외국인이다(71.4%)’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그 다음으로는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16.1%)’가 높게 나왔다.

<표 4.3.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국가에 대한 소속감

구 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χ^2
			나는 한국인 이다	나는 외국인 이다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 타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10	26	20	2	2	60	24.012***
		백분율	16.7%	43.3%	33.3%	3.3%	3.3%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1	40	5	9	1	56	
		백분율	1.8%	71.4%	8.9%	16.1%	1.8%	100.0%	
전 체		빈 도	11	66	25	11	3	116	
		백분율	9.5%	56.9%	21.6%	9.5%	2.6%	100.0%	

3)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실태(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김민정, 2006)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3.5%가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2.6%는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모두는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에 비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3.2>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나는 외국인이다(6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15.8%)’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나는 외국인이다(37.5%)’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32.5%)’가 높게 나왔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남녀 청소년들이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4.3.2> 성별 국가에 대한 소속감

구 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χ^2
			나는 한국인 이다	나는 외국인 이다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 타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8	51	12	2	3	76	20.174***
		백분율	10.5%	67.1%	15.8%	2.6%	3.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3	15	13	9	0	40	
		백분율	7.5%	37.5%	32.5%	22.5%	0.0%	100.0%	
전 체		빈 도	11	66	25	11	3	116	
		백분율	9.5%	56.9%	21.6%	9.5%	2.6%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3.3>과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나는 외국인이다(52.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나는 한국인이다(18.4%)’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나는 외국인이다(56.8%)’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그 다음으로는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18.2%)’가 높게 나왔다.

〈표 4.3.3〉 학력별 국가에 대한 소속감

구 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체	χ^2
			나는 한국인 이다	나는 외국인 이다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 타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7	20	6	5	0	38	14.205
		백분율	18.4%	52.6%	15.8%	13.2%	0.0%	100.0%	
	중학생	빈 도	3	25	8	6	2	44	
		백분율	6.8%	56.8%	18.2%	13.6%	4.5%	100.0%	
	고등학생	빈 도	1	21	11	0	1	34	
		백분율	2.9%	61.8%	32.4%	0.0%	2.9%	100.0%	
전 체		빈 도	11	66	25	11	3	116	
		백분율	9.5%	56.9%	21.6%	9.5%	2.6%	100.0%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나는 외국인이다(61.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32.4%)’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다수의 초·중·고 학생들 모두는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연령 높은 고학년의 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에 대한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표 4.3.4>와 같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45.7%(만족 31%, 매우 만족 14.7%)로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8.6%(불만족 6%, 매우 불만족 2.6%)에 그쳐다. 대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3.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한국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3	5	24	17	11	60	6.209
		백분율	5.0%	8.3%	40.0%	28.3%	18.3%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0	2	29	19	6	56	
		백분율	0.0%	3.6%	51.8%	33.9%	10.7%	100.0%	
전 체		빈 도	3	7	53	36	17	116	
		백분율	2.6%	6.0%	45.7%	31.0%	14.7%	100.0%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한국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표 4.3.4>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8.3%로써 10.7%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 더 한국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3.5>와 같이 남녀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에서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15%로써 14.5%인 남자 청소년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3.5> 성별 한국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3	4	35	23	11	76	1.850
		백분율	3.9%	5.3%	46.1%	30.3%	14.5%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0	3	18	13	6	40	
		백분율	0.0%	7.5%	45.0%	32.5%	15.0%	100.0%	
전 체			빈 도	3	7	53	36	17	116
			백분율	2.6%	6.0%	45.7%	31.0%	14.7%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3.6>과 같이 초·중·고 학생들 모두의 경우에서 보통이 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 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23.7%, 중학생이 15.9%, 고등학생이 2.9% 순으로 나 왔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저학년 학생들이 한국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6> 학력별 한국에 대한 만족도

구 분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1	1	17	10	9	38	10.095
		백분율	2.6%	2.6%	44.7%	26.3%	23.7%	100.0%	
	중학생	빈 도	2	4	19	12	7	44	
		백분율	4.5%	9.1%	43.2%	27.3%	15.9%	100.0%	
	고등학생	빈 도	0	2	17	14	1	34	
		백분율	0.0%	5.9%	50.0%	41.2%	2.9%	100.0%	
전 체		빈 도	3	7	53	36	17	116	
		백분율	2.6%	6.0%	45.7%	31.0%	14.7%	100.0%	

3) 이민희망 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 는지 물어본 결과 <표 4.3.7>과 같이 23.3%가 이민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한 반면에 37.1%는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이민희망 여부

구 분			앞으로 본국(고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전 체	χ^2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유 형 별	국제결혼	빈 도	13	20	27	60	14.251***
	가정 청소년	백분율	21.7%	33.3%	45.0%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30	7	19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53.6%	12.5%	33.9%	100.0%	
전 체		빈 도	43	27	46	116	
		백분율	37.1%	23.3%	39.7%	100.0%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이민희망 여부를 분석해 보면 <표 4.3.7>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겠다(45%)’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53.6%)’가 가장 높게 나왔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이민을 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3.8>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겠다(47.4%)’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42.5%)’가 가장 높게 나왔다. 즉 남자 청소년들 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이민을 더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8> 성별 이민희망 여부

구 분			앞으로 본국(고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전 체	χ^2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6	14	36	76	6.024*
		백분율	34.2%	18.4%	47.4%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7	13	10	40	
		백분율	42.5%	32.5%	25.0%	100.0%	
전 체		빈 도	43	27	46	116	
		백분율	37.1%	23.3%	39.7%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3.9>와 같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민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응답인 ‘예(45.5%)’가 가장 높게 나왔다.

〈표 4.3.9〉 학력별 이민희망 여부

구 분			앞으로 본국(고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전 체	χ^2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13	9	16	38	11.161*
		백분율	34.2%	23.7%	42.1%	100.0%	
	중학생	빈 도	20	14	10	44	
		백분율	45.5%	31.8%	22.7%	100.0%	
	고등학생	빈 도	10	4	20	34	
		백분율	29.4%	11.8%	58.8%	100.0%	
전 체		빈 도	43	27	46	116	
		백분율	37.1%	23.3%	39.7%	100.0%	

4. 가정생활

1) 가정생활 만족도

〈표 4.4.1〉에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4.4.1〉과 같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은 47.4%(만족 30.2%, 매우 만족 17.2%)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부정적 응답은 6.9%(불만족 5.2%, 매우 불만족 1.7%)에 그쳐다.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들은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가정생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표 4.4.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5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족스럽다(44.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가정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9.6%로써 15%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가정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가정생활(가족들과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2	5	34	10	9	60	15.421**
		백분율	3.3%	8.3%	56.7%	16.7%	15.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0	1	19	25	11	56	
		백분율	0.0%	1.8%	33.9%	44.6%	19.6%	100.0%	
전 체		빈 도	2	6	53	35	20	116	
		백분율	1.7%	5.2%	45.7%	30.2%	17.2%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4.2>와 같이 남녀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가정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37.5%로써 26.3%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4.2> 성별 가정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가정생활(가족들과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	2	37	20	15	76	6.119
		백분율	2.6%	2.6%	48.7%	26.3%	19.7%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0	4	16	15	5	40	
		백분율	0.0%	10.0%	40.0%	37.5%	12.5%	100.0%	
전 체		빈 도	2	6	53	35	20	116	
		백분율	1.7%	5.2%	45.7%	30.2%	17.2%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4.3>과 같이 초·중·고 학생들 모두의 경우에서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가정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36.8%, 중학생이 31.8%, 고등학생이 20.6%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저학년 학생들이 가정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표 4.4.3> 학력별 가정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가정생활(가족들과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0	2	15	14	7	38	9.210
		백분율	0.0%	5.3%	39.5%	36.8%	18.4%	100.0%	
	중학생	빈 도	2	1	18	14	9	44	
		백분율	4.5%	2.3%	40.9%	31.8%	20.5%	100.0%	
	고등학생	빈 도	0	3	20	7	4	34	
		백분율	0.0%	8.8%	58.8%	20.6%	11.8%	100.0%	
전 체		빈 도	2	6	53	35	20	116	
		백분율	1.7%	5.2%	45.7%	30.2%	17.2%	100.0%	

2) 부모와의 대화정도

<표 4.4.4>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정도를 조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4.4.4>와 같이 대화한다고 하는 응답이 56%(가끔 대화 27.6%, 자주 대화 28.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은 10.3%(별로 대화안함 8.6%, 전혀 대화안함 1.7%)에 그쳤다. 대부분의 많은 다문화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부모와의 대화정도를 분석해 보면 <표 4.4.4>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에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부모님과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35.7%로써 21.7%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자주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 4.4.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부모와의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2	9	19	17	13	60	9.909*
		백분율	3.3%	15.0%	31.7%	28.3%	21.7%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0	1	20	15	20	56	
		백분율	0.0%	1.8%	35.7%	26.8%	35.7%	100.0%	
전 체		빈 도	2	10	39	32	33	116	
		백분율	1.7%	8.6%	33.6%	27.6%	28.4%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4.5>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35.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주 대화한다(35%)’가 가장 높게 나왔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 보다 더 자주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5> 성별 부모와의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0	8	27	22	19	76	6.036
		백분율	0.0%	10.5%	35.5%	28.9%	25.0%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2	2	12	10	14	40	
		백분율	5.0%	5.0%	30.0%	25.0%	35.0%	100.0%	
	전 체	빈 도	2	10	39	32	33	116	
		백분율	1.7%	8.6%	33.6%	27.6%	28.4%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4.6>과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가끔 대화한다(39.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중학생은 ‘자주 대화한다(38.6%)’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통이다(61.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4.6> 학력별 부모와의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0	4	8	15	11	38	26.937***
		백분율	0.0%	10.5%	21.1%	39.5%	28.9%	100.0%	
	중학생	빈 도	0	3	10	14	17	44	
		백분율	0.0%	6.8%	22.7%	31.8%	38.6%	100.0%	
	고등학생	빈 도	2	3	21	3	5	34	
		백분율	5.9%	8.8%	61.8%	8.8%	14.7%	100.0%	
전 체		빈 도	2	10	39	32	33	116	
		백분율	1.7%	8.6%	33.6%	27.6%	28.4%	100.0%	

5. 학교생활

1) 학교생활 만족도

다문화청소년에게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표 4.5.1>과 같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은 39.7%(만족 31.9%, 매우 만족 7.8%)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부정적 응답은 18.1%(불만족 12.9%, 매우 불만족 5.2%)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부 상당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표 4.5.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통이다(39.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년들의 응답이 33.9%로써 30%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학교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4	7	27	18	4	60	1.245
		백분율	6.7%	11.7%	45.0%	30.0%	6.7%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2	8	22	19	5	56	
		백분율	3.6%	14.3%	39.3%	33.9%	8.9%	100.0%	
전 체		빈 도	6	15	49	37	9	116	
		백분율	5.2%	12.9%	42.2%	31.9%	7.8%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5.2>와 같이 남아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 보통이 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 우를 보면 남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35.5%로써 25%인 여자 청소년들 보다 높 게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 보다 더 학교생활에 만족 하고 있었다.

<표 4.5.2>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3	12	29	27	5	76	4.208
		백분율	3.9%	15.8%	38.2%	35.5%	6.6%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3	3	20	10	4	40	
		백분율	7.5%	7.5%	50.0%	25.0%	10.0%	100.0%	
전 체			빈 도	6	15	49	37	9	116
			백분율	5.2%	12.9%	42.2%	31.9%	7.8%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5.3>과 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초등학생의 경우는 ‘만족스럽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39.5%, 중학생이 31.8%, 고등학생이 23.5%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표 4.5.3> 학력별 학교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2	4	14	15	3	38	8.449
		백분율	5.3%	10.5%	36.8%	39.5%	7.9%	100.0%	
	중학생	빈 도	1	8	16	14	5	44	
		백분율	2.3%	18.2%	36.4%	31.8%	11.4%	100.0%	
	고등학생	빈 도	3	3	19	8	1	34	
		백분율	8.8%	8.8%	55.9%	23.5%	2.9%	100.0%	
전 체		빈 도	6	15	49	37	9	116	
		백분율	5.2%	12.9%	42.2%	31.9%	7.8%	100.0%	

2) 선생님과의 대화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하는지 물어본 결과 <표 4.5.4>와 같이 대화한다고 하는 응답이 41.4%(자주 대화 33.6%, 매우 자주 대화 7.8%)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은 23.3%(별로 대화안함 20.7%, 전혀 대화안함 2.6%)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선생님과 대화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선생님과 대화정도를 분석해 보면 <표 4.5.4>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33.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통이다(44.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선생님과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

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37.5%로써 30%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자주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선생님과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학교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3	20	16	18	3	60	16.755**
		백분율	5.0%	33.3%	26.7%	30.0%	5.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0	4	25	21	6	56	
		백분율	0.0%	7.1%	44.6%	37.5%	10.7%	100.0%	
전 체		빈 도	3	24	41	39	9	116	
		백분율	2.6%	20.7%	35.3%	33.6%	7.8%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5.5>와 같이 남아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 보통이 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선생님과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37.5%로써 31.6%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 보다 더 자주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5> 성별 선생님과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학교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3	17	26	24	6	76	2.238
		백분율	3.9%	22.4%	34.2%	31.6%	7.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0	7	15	15	3	40	
		백분율	0.0%	17.5%	37.5%	37.5%	7.5%	100.0%	
전 체		빈 도	3	24	41	39	9	116	
		백분율	2.6%	20.7%	35.3%	33.6%	7.8%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5.6>과 같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자주 대화한다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6> 학교별 선생님과의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학교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0	9	15	12	2	38	11.294
		백분율	0.0%	23.7%	39.5%	31.6%	5.3%	100.0%	
	중학생	빈 도	0	6	16	17	5	44	
		백분율	0.0%	13.6%	36.4%	38.6%	11.4%	100.0%	
	고등학생	빈 도	3	9	10	10	2	34	
		백분율	8.8%	26.5%	29.4%	29.4%	5.9%	100.0%	
전 체		빈 도	3	24	41	39	9	116	
		백분율	2.6%	20.7%	35.3%	33.6%	7.8%	100.0%	

3) 친구와의 대화정도

<표 4.5.7>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학교친구와의 대화정도를 조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4.5.7>과 같이 대화한다고 하는 응답이 70.7%(자주 대화 37.1%, 매우 자주 대화 33.6%)로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에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친구와의 대화정도를 분석해 보면 <표 4.5.7>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자주 대화한다(40%)’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우 자주 대화한다(37.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친구와 매우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37.5%로써 30%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자주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친구와의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학교 친구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6	12	24	18	60	1.716
		백분율	10.0%	20.0%	40.0%	30.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3	13	19	21	56	
		백분율	5.4%	23.2%	33.9%	37.5%	100.0%	
전 체		빈 도	9	25	43	39	116	
		백분율	7.8%	21.6%	37.1%	33.6%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5.8>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주 대화한다(43.4%)’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우 자주 대화한다(5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친구와의 ‘매우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55%로써 22.4%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 보다 더 자주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성별 친구와의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학교 친구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7	19	33	17	76	12.514**
		백분율	9.2%	25.0%	43.4%	22.4%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2	6	10	22	40	
		백분율	5.0%	15.0%	25.0%	55.0%	100.0%	
전 체		빈 도	9	25	43	39	116	
		백분율	7.8%	21.6%	37.1%	33.6%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5.9>와 같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주 대화한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자주 대화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9> 학력별 친구와의 대화정도

구 분			귀하는 학교 친구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전 체	χ^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대화한다	매우 자주 대화한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4	7	21	6	38	14.037*
		백분율	10.5%	18.4%	55.3%	15.8%	100.0%	
	중학생	빈 도	2	9	11	22	44	
		백분율	4.5%	20.5%	25.0%	50.0%	100.0%	
	고등학생	빈 도	3	9	11	11	34	
		백분율	8.8%	26.5%	32.4%	32.4%	100.0%	
전 체		빈 도	9	25	43	39	116	
		백분율	7.8%	21.6%	37.1%	33.6%	100.0%	

4)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학교생활 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표 4.5.10>과 ‘같이 배우는 내용 (20.7%)’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 (12.9%), 선생님과 의 관계 (10.3%), 놀림과 따돌림 (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중 배우는 내용과 친구관계에 대해 주로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학교생활 중 불만스러운 점을 분석해 보면 <표 4.5.10>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배우는 내용(30%)’이 학교생활 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만스러운 것은 ‘선생님과의 관계(15%)’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

우에는 친구관계(25%)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불만스러운 것은 놀림과 따돌림(16.1%)이었다.

<표 4.5.10>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구 분			귀하의 학교생활 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놀림과 따돌림	자율 학습	배우는 내용	특별 활동	특기 적성 교육	선생님의 수업 방법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 시설	기 타		
유형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2	2	18	1	3	5	1	9	4	15	60	34.377***
		백분율	3.3%	3.3%	30.0%	1.7%	5.0%	8.3%	1.7%	15.0%	6.7%	25.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9	5	6	4	0	1	14	3	2	12	56	
		백분율	16.1%	8.9%	10.7%	7.1%	0.0%	1.8%	25.0%	5.4%	3.6%	21.4%	100.0%	
전 체		빈 도	11	7	24	5	3	6	15	12	6	27	116	
		백분율	9.5%	6.0%	20.7%	4.3%	2.6%	5.2%	12.9%	10.3%	5.2%	23.3%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5.11>과 같이 남아 청소년들 모두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배우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으로 불만스러운 것은 친구관계였다.

<표 4.5.11> 성별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구 분			귀하의 학교생활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놀림과 따돌림	자유 학습	배우는 내용	특별 활동	특기 적성 교육	선생님의 수업 방법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 시설	기 타		
성별	남자 청소년	빈 도	8	7	18	4	1	4	11	9	3	11	76	15.595
		백분율	10.5%	9.2%	23.7%	5.3%	1.3%	5.3%	14.5%	11.8%	3.9%	14.5%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3	0	6	1	2	2	4	3	3	16	40	
		백분율	7.5%	0.0%	15.0%	2.5%	5.0%	5.0%	10.0%	7.5%	7.5%	40.0%	100.0%	
전 체		빈 도	11	7	24	5	3	6	15	12	6	27	116	
		백분율	9.5%	6.0%	20.7%	4.3%	2.6%	5.2%	12.9%	10.3%	5.2%	23.3%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5.12>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배우는 내용(21.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불만스러운 것은 친구관계(18.4%)였다. 중학생은 배우는 내용(15.9%)과 친구관계(15.9%)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으로 나왔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배우는 내용(26.5%)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불만스러운 것은 자율학습(14.7%)이었다.

<표 4.5.12> 학교별 학교생활의 불편 및 애로점

구 분			귀하의 학교생활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놀림과 따돌림	자율 학습	배우는 내용	특별 활동	특기 적성 교육	선생 님의 수업 방법	친구 관계	선생님 과의 관계	학교 시설	기 타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6	0	8	2	1	0	7	6	3	5	38	36.347**
		백분율	15.8%	0.0%	21.1%	5.3%	2.6%	0.0%	18.4%	15.8%	7.9%	13.2%	100.0%	
	중학생	빈 도	5	2	7	1	0	3	7	2	0	17	44	
		백분율	11.4%	4.5%	15.9%	2.3%	0.0%	6.8%	15.9%	4.5%	0.0%	38.6%	100.0%	
	고등학생	빈 도	0	5	9	2	2	3	1	4	3	5	34	
		백분율	0.0%	14.7%	26.5%	5.9%	5.9%	8.8%	2.9%	11.8%	8.8%	14.7%	100.0%	
전 체		빈 도	11	7	24	5	3	6	15	12	6	27	116	
		백분율	9.5%	6.0%	20.7%	4.3%	2.6%	5.2%	12.9%	10.3%	5.2%	23.3%	100.0%	

5)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왕따나 폭행을 당해 본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4.5.13>과 같이 없다가 85.3%인 반면에 있다는 14.7%였다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소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왕따 및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한국교육개발원(2005)의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3,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13.4%에 해당하는 학생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표 4.5.13>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구 분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왕따(집단따돌림)나 폭행을 당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 체	χ^2
			없다	있다		
유 형 별	국제결혼	빈 도	53	7	60	0.887
	가정 청소년	백분율	88.3%	11.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46	10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82.1%	17.9%	100.0%	
전 체		빈 도	99	17	116	
		백분율	85.3%	14.7%	100.0%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를 분석해 보면 <표 4.5.13>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11.7%가 왕따 및 폭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88.3%는 경험이 없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17.9%가 경험이 있는 반면에 82.1%는 왕따 및 폭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보다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에게서 왕따 및 폭행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5.14>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15.8%가 왕따 및 폭행경험이 있는 반면에 84.2%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2.5%가 경험이 있는 반면에 87.5%는 왕따 및 폭행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들의 왕따 및 폭행경험이 여자 청소년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5.14〉 성별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구 분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왕따(집단따돌림)나 폭행을 당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 체	χ^2
			없다	있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64	12	76	0.227
		백분율	84.2%	15.8%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35	5	40	
		백분율	87.5%	12.5%	100.0%	
전 체		빈 도	99	17	116	
		백분율	85.3%	14.7%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5.15>와 같이 초등학교의 경우 15.8%가 왕따 및 폭행 경험이 있는 반면에 84.2%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중학생은 15.9%가 경험이 있는 반면에 84.1%는 경험이 없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1.8%가 경험이 있는 반면에 88.2%는 왕따 및 폭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5〉 학력별 왕따 및 폭행 경험여부

구 분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왕따(집단따돌림)나 폭행을 당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 체	χ^2
			없다	있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32	6	38	0.322
		백분율	84.2%	15.8%	100.0%	
	중학생	빈 도	37	7	44	
		백분율	84.1%	15.9%	100.0%	
	고등학생	빈 도	30	4	34	
		백분율	88.2%	11.8%	100.0%	
전 체		빈 도	99	17	116	
		백분율	85.3%	14.7%	100.0%	

6. 지역사회생활

1)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표 4.6.1>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역사회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4.6.1>과 같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은 34.4%(만족 28.4%, 매우 만족 6%)로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부정적 응답은 13.7%(불만족 10.3%, 매우 불만족 3.4%)에 그쳤다.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지역사회생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표 4.6.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6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통이다(42.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지역사회생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6.1%로써 5%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지역사회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6.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마을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0	3	36	20	1	60	14.335**
		백분율	0.0%	5.0%	60.0%	33.3%	1.7%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4	9	24	13	6	56	
		백분율	7.1%	16.1%	42.9%	23.2%	10.7%	100.0%	
전 체		빈 도	4	12	60	33	7	116	
		백분율	3.4%	10.3%	51.7%	28.4%	6.0%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6.2>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57.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통이다(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37.5%로써 23.7%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 보다 더 지역사회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표 4.6.2> 성별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마을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 스럽다	불만족 스럽다	보통이다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1	10	44	18	3	76	9.564*
		백분율	1.3%	13.2%	57.9%	23.7%	3.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3	2	16	15	4	40	
		백분율	7.5%	5.0%	40.0%	37.5%	10.0%	100.0%	
전 체		빈 도	4	12	60	33	7	116	
		백분율	3.4%	10.3%	51.7%	28.4%	6.0%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6.3>과 같이 초·중·고 학생들 모두의 경우 ‘보통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지역사회생활에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이 5.3%, 중학생이 4.5%, 고등학생이 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3> 학력별 지역사회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마을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2	3	18	12	3	38	6.713
		백분율	5.3%	7.9%	47.4%	31.6%	7.9%	100.0%	
	중학생	빈 도	2	6	22	10	4	44	
		백분율	4.5%	13.6%	50.0%	22.7%	9.1%	100.0%	

	고등학생	빈 도	0	3	20	11	0	34	
		백분율	0.0%	8.8%	58.8%	32.4%	0.0%	100.0%	
전 체	빈 도	4	12	60	33	7	116		
	백분율	3.4%	10.3%	51.7%	28.4%	6.0%	100.0%		

2) 이웃과의 관계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표 4.6.4>와 같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응답이 52.5%(좋음 35.3%, 매우 좋음 17.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나쁜 편이라고 하는 응답은 7.7%(나쁨 4.3%, 매우 나쁨 3.4%)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이웃과의 관계정도를 분석해 보면 <표 4.6.4>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60%)’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좋은 편이다(48.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28.6%로써 6.7%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이웃과의 관계정도

구 분			귀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전 체	χ^2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유형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2	4	36	14	4	60	27.713***
		백분율	3.3%	6.7%	60.0%	23.3%	6.7%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2	1	10	27	16	56	
		백분율	3.6%	1.8%	17.9%	48.2%	28.6%	100.0%	
전 체		빈 도	4	5	46	41	20	116	
		백분율	3.4%	4.3%	39.7%	35.3%	17.2%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6.5>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 (48.7%)’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좋은 편이다 (57.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57.5%로써 23.7%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 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6.5> 성별 이웃과의 관계정도

구 분			귀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전 체	χ^2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1	4	37	18	16	76	18.237***
		백분율	1.3%	5.3%	48.7%	23.7%	21.1%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3	1	9	23	4	40	
		백분율	7.5%	2.5%	22.5%	57.5%	10.0%	100.0%	
전 체		빈 도	4	5	46	41	20	116	
		백분율	3.4%	4.3%	39.7%	35.3%	17.2%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6.6>과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6.6> 학력별 이웃과의 관계정도

구 분			귀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전 체	χ^2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2	1	13	15	7	38	15.033
		백분율	5.3%	2.6%	34.2%	39.5%	18.4%	100.0%	
	중학생	빈 도	0	3	12	20	9	44	
		백분율	0.0%	6.8%	27.3%	45.5%	20.5%	100.0%	
	고등학생	빈 도	2	1	21	6	4	34	
		백분율	5.9%	2.9%	61.8%	17.6%	11.8%	100.0%	
전 체		빈 도	4	5	46	41	20	116	
		백분율	3.4%	4.3%	39.7%	35.3%	17.2%	100.0%	

3) 마을행사 참여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이웃과 함께 하는 일이나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4.6.7>과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이 42.2%(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15.5%,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6.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참여한다고 하는 응답은 18.1%(자주 참여한다 12.9%, 매우 자주 참여한다 5.2%)에 그쳤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마을행사 참여정도를 분석해 보면 <표 4.6.7>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매우 자주 참여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8.3%로써 1.8%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6.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마을행사 참여정도

구 분			귀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 체	χ^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참여한다	매우 자주 참여한다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14	11	24	6	5	60	4.400
		백분율	23.3%	18.3%	40.0%	10.0%	8.3%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17	7	22	9	1	56	
		백분율	30.4%	12.5%	39.3%	16.1%	1.8%	100.0%	
전 체		빈 도	31	18	46	15	6	116	
		백분율	26.7%	15.5%	39.7%	12.9%	5.2%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6.8>과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이다(44.7%)’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37.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자주 참여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15%로써 11.8%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6.8> 성별 마을행사 참여정도

구 분			귀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 체	χ^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참여한다	매우 자주 참여한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16	14	34	9	3	76	6.127
		백분율	21.1%	18.4%	44.7%	11.8%	3.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5	4	12	6	3	40	
		백분율	37.5%	10.0%	30.0%	15.0%	7.5%	100.0%	
전 체		빈 도	31	18	46	15	6	116	
		백분율	26.7%	15.5%	39.7%	12.9%	5.2%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6.9>와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의 경우에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이 32.4%, 중학생이 25%, 초등학생이 2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9> 학력별 마을행사 참여정도

구 분			귀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 체	χ^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자주 참여한다	매우 자주 참여한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9	7	18	2	2	38	5.682
		백분율	23.7%	18.4%	47.4%	5.3%	5.3%	100.0%	
	중학생	빈 도	11	5	18	8	2	44	
		백분율	25.0%	11.4%	40.9%	18.2%	4.5%	100.0%	
	고등학생	빈 도	11	6	10	5	2	34	
		백분율	32.4%	17.6%	29.4%	14.7%	5.9%	100.0%	
전 체		빈 도	31	18	46	15	6	116	
		백분율	26.7%	15.5%	39.7%	12.9%	5.2%	100.0%	

7. 문화여가생활

1)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문화여가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표 4.14>와 같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긍정적인 응답은 44% (만족 34.5%, 매우 만족 9.5%)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부정적 응답은 13%(불만족 12.1%, 매우 불만족 0.9%)에 그쳤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표 4.7.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만족스럽다(4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통이다(60.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48.3%로써 19.6%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7.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유형별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빈 도	0	11	16	29	4	60	20.856***
		백분율	0.0%	18.3%	26.7%	48.3%	6.7%	100.0%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빈 도	1	3	34	11	7	56	
		백분율	1.8%	5.4%	60.7%	19.6%	12.5%	100.0%	
전 체		빈 도	1	14	50	40	11	116	
		백분율	0.9%	12.1%	43.1%	34.5%	9.5%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7.2>와 같이 남여 청소년들 모두의 경우에 보통 이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문화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의 응답이 40%로써 31.6%인 남자 청소년들 보 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 보다 더 문화여가생 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표 4.7.2> 성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0	12	33	24	7	76	4.989
		백분율	0.0%	15.8%	43.4%	31.6%	9.2%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	2	17	16	4	40	
		백분율	2.5%	5.0%	42.5%	40.0%	10.0%	100.0%	
전 체		빈 도	1	14	50	40	11	116	
		백분율	0.9%	12.1%	43.1%	34.5%	9.5%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7.3>과 같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의 경우에 보통이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만족스럽다’가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문화여가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의 경우를 보 면 고등학생이 44.1%, 중학생이 34.1%, 초등학생이 26.3%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은 고학년 학생들이 문화여가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었 다.

<표 4.7.3> 학력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구 분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1	3	16	10	8	38	16.430*
		백분율	2.6%	7.9%	42.1%	26.3%	21.1%	100.0%	
	중학생	빈 도	0	4	23	15	2	44	
		백분율	0.0%	9.1%	52.3%	34.1%	4.5%	100.0%	
	고등학생	빈 도	0	7	11	15	1	34	
		백분율	0.0%	20.6%	32.4%	44.1%	2.9%	100.0%	
전 체		빈 도	1	14	50	40	11	116	
		백분율	0.9%	12.1%	43.1%	34.5%	9.5%	100.0%	

2)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표 4.7.4>와 같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2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20.7%)’, ‘공부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18.1%)’,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12.1%)’ 순으로 나왔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 문화여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7.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

구 분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과 장소부족	시간 부족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	공부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이 반대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놀임과 차별	기 타		
유형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4	14	4	13	22	1	2	60	26.078***
		백분율	6.7%	23.3%	6.7%	21.7%	36.7%	1.7%	3.3%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5	10	10	8	5	3	15	56	
		백분율	8.9%	17.9%	17.9%	14.3%	8.9%	5.4%	26.8%	100.0%	
전 체		빈 도	9	24	14	21	27	4	17	116	
		백분율	7.8%	20.7%	12.1%	18.1%	23.3%	3.4%	14.7%	100.0%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분석해 보면 <표 4.7.4>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다(36.7%)’가 문화여가활동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21.7%)’가 높게 나왔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부족(17.9%)’과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17.9%)’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7.5>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문화여가활동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26.3%)’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부족(23.7%)’이 높게 나왔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부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2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17.5%)’가 높게 나타났다.

<표 4.7.5> 성별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

구 분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과 장소부족	시간부족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	공부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놀림과 차별	기 타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4	18	11	13	20	3	7	76	9.394
		백분율	5.3%	23.7%	14.5%	17.1%	26.3%	3.9%	9.2%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5	6	3	8	7	1	10	40	
		백분율	12.5%	15.0%	7.5%	20.0%	17.5%	2.5%	25.0%	100.0%	
전 체		빈 도	9	24	14	21	27	4	17	116	
		백분율	7.8%	20.7%	12.1%	18.1%	23.3%	3.4%	14.7%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7.6>과 같이 초등학교생의 경우 ‘시간부족(31.6%)’이 문화여가활동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부에 방해된다

고 부모님이 반대한다(18.4%)’와 ‘경제적 여유가 없다(18.4%)’가 높게 나왔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시간부족(22.7%)’이 문화여가활동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35.3%)’와 ‘경제적 여유가 없다(32.4%)’가 높게 나왔다.

<표 4.7.6> 학력별 문화여가활동의 장애요인

구 분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과 장소부족	시간부족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	공부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이 반대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놀림과 차별	기 타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2	12	1	7	7	1	8	38	29.848**
		백분율	5.3%	31.6%	2.6%	18.4%	18.4%	2.6%	21.1%	100.0%	
	중학생	빈 도	6	10	8	2	9	3	6	44	
		백분율	13.6%	22.7%	18.2%	4.5%	20.5%	6.8%	13.6%	100.0%	
	고등학생	빈 도	1	2	5	12	11	0	3	34	
		백분율	2.9%	5.9%	14.7%	35.3%	32.4%	0.0%	8.8%	100.0%	
전 체		빈 도	9	24	14	21	27	4	17	116	
		백분율	7.8%	20.7%	12.1%	18.1%	23.3%	3.4%	14.7%	100.0%	

3)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누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4.7.7>과 같이 ‘친구와 함께(6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15.5%)’, ‘혼자서(8.6%)’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누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면 <표 4.7.7>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 함께(7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15%)’가 높게 나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도 역시 ‘친구와 함께(55.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16.1%)’가 높았다.

<표 4.7.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구 분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하십니까?						전 체	χ^2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선배나 후배와 함께	자신이 소속된 동아리나 단체와 함께	기 타		
유형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7	9	42	0	2	0	60	14.135*
		백분율	11.7%	15.0%	70.0%	0.0%	3.3%	0.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3	9	31	1	2	10	56	
		백분율	5.4%	16.1%	55.4%	1.8%	3.6%	17.9%	100.0%	
전 체		빈 도	10	18	73	1	4	10	116	
		백분율	8.6%	15.5%	62.9%	0.9%	3.4%	8.6%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7.8>과 같이 남녀 청소년 모두의 경우에서 ‘친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혼자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8> 성별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구 분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하십니까?						전 체	χ^2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선배나 후배와 함께	자신이 소속된 동아리나 단체와 함께	기 타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5	12	51	1	4	3	76	9.902
		백분율	6.6%	15.8%	67.1%	1.3%	5.3%	3.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5	6	22	0	0	7	40	
		백분율	12.5%	15.0%	55.0%	0.0%	0.0%	17.5%	100.0%	
전 체		빈 도	10	18	73	1	4	10	116	
		백분율	8.6%	15.5%	62.9%	0.9%	3.4%	8.6%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7.9>와 같이 초·중·고 학생들 모두의 경우에서 ‘친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과 함께’, ‘혼자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7.9> 학력별 문화여가활동시 동반자

구 분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하십니까?						전 체	χ^2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선배나 후배와 함께	자신이 소속된 동아리나 단체와 함께	기 타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3	6	19	0	2	8	38	19.152*
		백분율	7.9%	15.8%	50.0%	0.0%	5.3%	21.1%	100.0%	
	중학생	빈 도	2	9	29	1	2	1	44	
		백분율	4.5%	20.5%	65.9%	2.3%	4.5%	2.3%	100.0%	
	고등학생	빈 도	5	3	25	0	0	1	34	
		백분율	14.7%	8.8%	73.5%	0.0%	0.0%	2.9%	100.0%	
전 체		빈 도	10	18	73	1	4	10	116	
		백분율	8.6%	15.5%	62.9%	0.9%	3.4%	8.6%	100.0%	

8. 미래의 모습 및 전망정도

1) 미래의 나의모습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표 4.8.1>과 같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2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25.9%,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19%, ‘내 취미와 소질 개발’ 12.1%,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1>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미래의 나의모습

구 분			귀하가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돈을 많이 버는 것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취미와 소질 개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순간순간 만족스럽게 사는 것	기 타		
유 형 별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빈 도	25	9	6	14	2	4	0	60	23.927***
		백분율	41.7%	15.0%	10.0%	23.3%	3.3%	6.7%	0.0%	100.0%	
	외국인근로자 가정 청소년	빈 도	5	13	8	17	8	1	4	56	
		백분율	8.9%	23.2%	14.3%	30.4%	14.3%	1.8%	7.1%	100.0%	
	전 체		빈 도	30	22	14	31	10	5	4	116
			백분율	25.9%	19.0%	12.1%	26.7%	8.6%	4.3%	3.4%	100.0%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 <표 4.8.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돈을 많이 버는 것(41.7%)’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23.3%)’이 높게 나왔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30.4%)’이 가장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23.2%)’이 높게 나타났다.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8.2>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30.3%)’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26.3%)’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2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20%)’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20%)’이 높게 나왔다.

<표 4.8.2> 성별 미래의 나의모습

구 분			귀하가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돈을 많이 버는 것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취미와 소질 개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순간순간 만족스럽게 사는 것	기 타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20	15	9	23	2	4	3	76	10.923
		백분율	26.3%	19.7%	11.8%	30.3%	2.6%	5.3%	3.9%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10	7	5	8	8	1	1	40	
		백분율	25.0%	17.5%	12.5%	20.0%	20.0%	2.5%	2.5%	100.0%	
전 체		빈 도	30	22	14	31	10	5	4	116	
		백분율	25.9%	19.0%	12.1%	26.7%	8.6%	4.3%	3.4%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8.3>과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34.2%)’이 가장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21.1%)’이 높게 나왔다. 중학생의 경우는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

는 것(29.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20.5%)’,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20.5%)’이 높게 나왔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38.2%)’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26.5%)’이 높게 나타났다.

<표 4.8.3> 학력별 미래의 나의모습

구 분			귀하가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돈을 많이 버는 것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취미와 소질 개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순간순간 만족스럽게 사는 것	기 타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8	6	3	13	3	2	3	38	16.133
		백분율	21.1%	15.8%	7.9%	34.2%	7.9%	5.3%	7.9%	100.0%	
	중학생	빈 도	9	13	5	9	4	3	1	44	
		백분율	20.5%	29.5%	11.4%	20.5%	9.1%	6.8%	2.3%	100.0%	
	고등학생	빈 도	13	3	6	9	3	0	0	34	
		백분율	38.2%	8.8%	17.6%	26.5%	8.8%	0.0%	0.0%	100.0%	
전 체		빈 도	30	22	14	31	10	5	4	116	
		백분율	25.9%	19.0%	12.1%	26.7%	8.6%	4.3%	3.4%	100.0%	

2) 원하는 미래의 직업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직업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표 4.8.4>와 같이 전문직(의사, 교수 등)이 16.4%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업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연예인 및 방송인 12.9%, 체육인과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각각 12.1%, 사무직 1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4>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원하는 미래의 직업

구 분			귀하가 원하는 미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사무직 (회사, 공무원 등)	전문직 (의사, 교수 등)	자영업 (상점 경영)	공장 및 건설 노동자	교직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군 관련 종사 자(군 인, 경 찰 등)	컴퓨터 관련 종사자 (프로그 래머, 게 이머 등)	예술인 (화가, 사진사, 디자이너 등)	체육인 (운동 선수, 스포츠 해설가 등)	연예 및 방송인 (가수, 배우 등)			
유 형 별	국제결혼	빈 도	5	10	4	2	3	4	3	2	10	7	10	60	17.478
	가정 청소년	백분율	8.3%	16.7%	6.7%	3.3%	5.0%	6.7%	5.0%	3.3%	16.7%	11.7%	16.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7	9	0	3	4	1	11	5	4	8	4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12.5%	16.1%	0.0%	5.4%	7.1%	1.8%	19.6%	8.9%	7.1%	14.3%	7.1%	100.0%	
전 체		빈 도	12	19	4	5	7	5	14	7	14	15	14	116	
		백분율	10.3%	16.4%	3.4%	4.3%	6.0%	4.3%	12.1%	6.0%	12.1%	12.9%	12.1%	100.0%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직업을 분석해 보면 <표 4.8.4>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전문직(16.7%)과 체육인(16.7%)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예인 및 방송인(11.7%)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종사자(19.6%)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직(16.1%)이 높게 나타났다.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8.5>와 같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전문직(18.4%)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육인(17.1%)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예인 및 방송인(20%)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인(17.5%)이 높게 나타났다.

<표 4.8.5> 성별 원하는 미래의 직업

구 분			귀하가 원하는 미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사무직 (회사, 공무원 등)	전문직 (의사, 학자 등)	자영업 (상점 경영)	공장 및 건설 노동자	교직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군 관련 종사자 (군인, 경찰 등)	컴퓨터 관련 종사자 (프로그 래머, 게이머 등)	예술인 (화가, 사진사, 디자이너 등)	체육인 (운동 선수, 스포츠 해설가 등)	연예 및 방송인 (가수, 배우 등)			기 타
성 별	남자	빈 도	8	14	4	4	2	4	11	0	13	7	9	76	29.188***
	청소년	백분율	10.5%	18.4%	5.3%	5.3%	2.6%	5.3%	14.5%	0.0%	17.1%	9.2%	11.8%	100.0%	

	여자	빈 도	4	5	0	1	5	1	3	7	1	8	5	40
	청소년	백분율	10.0%	12.5%	0.0%	2.5%	12.5%	2.5%	7.5%	17.5%	2.5%	20.0%	12.5%	100.0%
전 체	빈 도	12	19	4	5	7	5	14	7	14	15	14	116	
	백분율	10.3%	16.4%	3.4%	4.3%	6.0%	4.3%	12.1%	6.0%	12.1%	12.9%	12.1%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8.6>과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 사무직(18.4%)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예인 및 방송인(15.8%)과 체육인(15.8%)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전문직(22.7%)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컴퓨터 관련 종사자(15.9%)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예인 및 방송인(17.6%)과 컴퓨터 관련 종사자(17.6%)가 가장 원하는 미래의 직업이었다.

<표 4.8.6> 학력별 원하는 미래의 직업

구 분			귀하가 원하는 미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 체	χ^2
			사무직 (회사, 공무원 등)	전문직 (의사, 학자 등)	자영업 (상점 경영)	공장 및 건설 노동자	교직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군 관련 종사자 (군인, 경찰 등)	컴퓨터 관련 종사자 (프로그 래머, 게이머 등)	예술인 (화가, 사진사, 디자이너 등)	체육인 (운동 선수, 스포츠 해설가 등)	연예 및 방송인 (가수, 배우 등)	기 타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7	4	0	1	4	2	1	3	6	6	4	38	22.210
		백분율	18.4%	10.5%	0.0%	2.6%	10.5%	5.3%	2.6%	7.9%	15.8%	15.8%	10.5%	100.0%	
	중학생	빈 도	4	10	1	2	3	2	7	2	4	3	6	44	
		백분율	9.1%	22.7%	2.3%	4.5%	6.8%	4.5%	15.9%	4.5%	9.1%	6.8%	13.6%	100.0%	
	고등학생	빈 도	1	5	3	2	0	1	6	2	4	6	4	34	
		백분율	2.9%	14.7%	8.8%	5.9%	0.0%	2.9%	17.6%	5.9%	11.8%	17.6%	11.8%	100.0%	
전 체		빈 도	12	19	4	5	7	5	14	7	14	15	14	116	
		백분율	10.3%	16.4%	3.4%	4.3%	6.0%	4.3%	12.1%	6.0%	12.1%	12.9%	12.1%	100.0%	

3)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표 4.8.7>과 같이 희망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응답이 54.4%(희망적임 32.8%, 매우 희망적임 21.6%)로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응답은 6.9%(비관적임 4.3%, 매우 비관적임 2.6%)에 그쳤다. 대다수의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표 4.8.7>과 같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그저 그렇다(48.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우 희망적이다(32.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자신의 미래를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32.1%로써 11.7%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 보다 더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8.7>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구 분			귀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비관적이 다	비관적이 다	그저 그렇다	희망적이 다	매우 희망적이 다		
유 형 별	국제결혼	빈 도	1	2	29	21	7	60	9.423*
	가정 청소년	백분율	1.7%	3.3%	48.3%	35.0%	11.7%	100.0%	
	외국인근로자	빈 도	2	3	16	17	18	56	
	가정 청소년	백분율	3.6%	5.4%	28.6%	30.4%	32.1%	100.0%	
전 체			빈 도	3	5	45	38	25	116
			백분율	2.6%	4.3%	38.8%	32.8%	21.6%	100.0%

② 성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8.8>과 같이 남녀 청소년의 경우 ‘그저 그렇다(36.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역시 ‘그저 그렇다(42.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여자 청소년들의 응답이 35%로써 31.6%인 남자 청소년들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8.8〉 성별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구 분			귀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비관적이 다	비관적이 다	그저 그렇다	희망적이 다	매우 희망적이 다		
성 별	남자 청소년	빈 도	3	4	28	24	17	76	2.421
		백분율	3.9%	5.3%	36.8%	31.6%	22.4%	100.0%	
	여자 청소년	빈 도	0	1	17	14	8	40	
		백분율	0.0%	2.5%	42.5%	35.0%	20.0%	100.0%	
전 체			빈 도	3	5	45	38	25	116
			백분율	2.6%	4.3%	38.8%	32.8%	21.6%	100.0%

③ 학력별

학력별로는 <표 4.8.9>와 같이 초·중·고 학생들 모두의 경우에서 그저 그렇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응답의 경우를 보면 고등학생이 35.3%, 중학생이 31.8%, 초등생이 3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9〉 학력별 나의 미래에 대한 전망정도

구 분			귀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체	χ^2
			매우 비관적이 다	비관적이 다	그저 그렇다	희망적이 다	매우 희망적이 다		
학 력 별	초등학생	빈 도	0	3	15	12	8	38	8.688
		백분율	0.0%	7.9%	39.5%	31.6%	21.1%	100.0%	
	중학생	빈 도	1	0	16	14	13	44	
		백분율	2.3%	0.0%	36.4%	31.8%	29.5%	100.0%	
	고등학생	빈 도	2	2	14	12	4	34	
		백분율	5.9%	5.9%	41.2%	35.3%	11.8%	100.0%	
전 체		빈 도	3	5	45	38	25	116	
		백분율	2.6%	4.3%	38.8%	32.8%	21.6%	100.0%	

V.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1.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V.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1.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표 5.1>과 같이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정부조직 중 4개 부(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에서 대체로 한국어 습득이나 문화체험 및 인권보호 등과 같은 프로그램 위주의 다문화가정 및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관련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 주로 실시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 현황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법무부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05.9) ◦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시에도 자녀 접견 위해 국내 체류 허가	◦ 입국심사시 국적, 인권 관련 정보 리플렛 제공
여성가족부	◦ 부부교육 및 가족상담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 '한국어교재' 개발 ◦ '한국어 교실' 운영 ◦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설립	-
보건복지부	◦ 혼혈인 생계비 및 학비 보조(필벽재단 위탁) ◦ 빈곤층 혼혈인에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지원 ◦ 결혼이민자 가족이 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 소득·재산 제외('05.8~) ◦ 건강보험 가입안내 외국어 리플렛	-

	제작('05.11)	
노동부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등 고용 관리
문화 관광부	○ '국제결혼이주여성 언어사용 실태 조사' 실시(국립국어원) ○ 이주여성 자녀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 발간 (10개 언어) ○ 국악 및 한국무용 공연, 체육대회, 문화교류 행사 개최
	○ 한국어 강좌 개설·운영(한국어세계화 재단)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통일부	-	-
교육인적 자원부	-	○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절차 완화 ('03)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p. 18.

2.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이 전국 8개도(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외국인 주부나 이주여성 중심으로 한국어 습득이나 문화체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전남(18개 시·군 포함)과 강원도(14개 시·군 포함)에서 타 시도 보다 더 활발하게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은 <표 5.2>와 같다.

〈표 5.2〉 ‘06년 지자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현황
(여가부, ‘06.1.)

사·도		사업 내역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도	경기도내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문화체험 등
	수원시	외국인주부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한글교육, 요리교실, 문화교육 등)
	성남시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한국어 및 요리 교육
	안양시	외국인근로자 체육행사, 이주여성 보호 사업(문화활동, 미술치료, 예술치료 등)
	광명시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교육
	광주시	한국어교육
	포천시	한국어교육
강원	도	외국인주부 멘토링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외국인주부를 위한 외국어문화교실
		외국인주부 자매결연 및 화합행사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PC실무과정
		여성결혼이민자부부 양성평등 교육 및 부부외출프로그램
		평등가족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외국인주부 부부연수회
		외국인주부 문화탐방
	원주	한글교육반 강사수당, 연찬회참가여비
	강릉	외국인주부 연찬회, 전통문화체험
	동해	외국인주부 출산비 지원
	태백	외국인주부 명절 위문, 생활안정지원, 간담회 급식비
	홍천	외국인주부 연찬회 참가 여비 보상
	횡성	취학전 자녀양육비 지급, 가족연수회, 한글교실 수강생 현장학습, 교 류참석 여비 보상

	평창	외국인주부 교육 및 행사참가 여비
	정선	외국인주부 친정방문지원, 만남의 날 행사
	철원	외국인주부 친정방문지원, 워크숍
	화천	한국어교육, 예절교육, 향토문화탐방, 요리교실, 가족캠프, 친정방문 프로그램, 외국인주부 가족의 날
	양구	한글교육, 전통문화교육, 외국인주부 강사활용 외국어교육
	인제	문화체험, 전통예절교육, 생일케이크보내기
	고성	외국인주부 교육(전통요리, 한글), 문화유적지 답사, 외국인주부 만남의 날 운영
	양양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교포해외여성 친선대회, 명절위문
충북	도	부부연수, 우리문화알기 프로그램, 순회교육(가족문화, 임신, 육아),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지원(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자녀놀이방 운영 등),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지원(한국어교육, 법률상담, 문화교실운영 등)
	청주시	문화체험
	충주시	문화교육
	청원군	외국인주부아카데미
	보은군	외국인주부 요리솜씨 자랑, 외국인부부 합동결혼식
	진천군	문화유적 답사
충남		국제결혼가정 행복한가정가꾸기사업, 우리문화보급사업, 자녀학업자료지원
전북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착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가족교육사업
전남	도	부부공동체훈련 지원
	여수	이주여성간담회, 이주여성보호 및 이혼관련 프로그램 운영
	순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나주	주부쉼터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
	담양	이주여성 외국어강사료, 가족공동체훈련, 한국문화교실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곡성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 원어민교사 인력양성 사업, 이주여성 가족의날 지원사업, 외국인주부 여성교육 참석보상
	구례	외국인여성 및 가족 한국문화탐방, 외국인여성 한국문화 예절 익히기
	보성	한글 및 문화교실
	화순	한글 및 문화학당운영
	장흥	전통음식 및 꽃꽂이 교육
	강진	한글교육지원, 한글 및 문화적응 교육, 출산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해남	외국인주부 우리문화 적응교육
	영암	부부공동체교육, 출산용품지원사업, 한글교육 및 문화체험교육
전남	장성	한글교육 및 문화유적지 탐방
	함평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
	영광	우리문화이해와 생활교육
	완도	전통문화강좌 운영
	진도	외국인여성주부 워크숍, 외국인 배우자 가정 지원
	신안	문화탐방 및 부부교육
경북	도	우리말 공부방 운영,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피해 외국인 주부 멘토제도 운영
	구미	외국인 정보자료실 운영(3개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강사수당
	안동	외국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영양	이주여성 간담회
	고령	외국인주부 전통문화 체험교육
	성주	행복한 농촌가정 만들기 사업, 외국인주부 문화유적 탐방
	예천	외국인여성 및 자녀교육
경남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발간, 부부교육, 생활 및 가족상담, 문화교육, 부부(가족) 캠프, 국제결혼가정학교, 결혼이민자 가족 어울 마당
제주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pp. 19~20.

V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2.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V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1)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국제결혼가정들은 태생 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며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 또한 모국과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 속에서 살고 있음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김갑성, 2006).

첫째,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이다. 가족 공동체에서 이중문화의 존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게 되며 이러한 고통과 긴장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으로 인하여 가정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상황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즉 의식주 전반에 걸친 다른 문화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내려다보기로 인해 부부와 가족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남성중심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언어의 소통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언어 소통이 자유스러우면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셋째, 결혼의 목적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국제결혼가정 부부는 사랑에 의하여 연애기간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 종교적 이유, 경제적 목적, 혹은 호기심에 의하여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쉽게 싫어질 수 있다.

넷째, 자녀교육의 문제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돈을 겪을 수 있다. 자녀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자녀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는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이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펴낸재단 한국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혼혈아동의 학업중도 탈락률을 보면 일반학생은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가 하나도 없는 반면에 혼혈아동은 9.4%가 되고,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의 경우에도 일반학생이 1.1%임에 반해 17.5%나 되었다. 한편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39.7%로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고민 및 걱정거리는 공부·학업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문제이다. 2005년의 경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14.7%가 언어(말투, 말씨, 한글 등)문제로 인해 크게 고민 및 걱정하고 있었으며, 19.8%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언어(한국어와 한글) 배우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또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주요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는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내용이 각각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19%가 자신들의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왔는데, 이들의 35%가 이 문제로 인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외모(혼혈) 및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적응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놀림) 때문에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56.9%가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9.5%만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일생생활 속에서 경험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의 외모(혼혈)로 인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제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응답이 18.3%로 나타나 3.6%의 응답을 보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외모로 인한 친구로부터의 놀림과 따돌림 문제는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2.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1)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대부분은 학교 및 사회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부적응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본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존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생활 전반(한국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화여가생활 등)에 걸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 45.7%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불과 8.6%만이 불만족하고 있었다.
-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47.4%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6.9%에 그쳤다.
-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39.7%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18.1%가 불만족하고 있었다.
- 지역사회생활에 대해서는 34.4%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13.7%이었다.
- 문화여가생활에 대해서는 44%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13%가 불만족하고 있었다.

② 세계일보 취재팀(2007. 4 .24일자 기사)의 다인종·다국적 사회로의 변화상을 보기 위해 충북 보은 등 전국 4개 지역 6개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40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이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방어 본능에 잔뜩 움츠려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여지없이 깨졌다. 동남아 출신이 우리와 피부색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더불어 사는 법을 알고 있었다.

③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 불공평한 대우 및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구로부터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57.8%이었으며, 이웃으로부터 외모로 인한 수군거림과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69%이었다.
-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64.6%이었다.
-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응답은 73.9%이었다.

④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56.1%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부적응 정도 및 부적응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 대해 만족하며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여전히 심각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①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받기 및 공부하기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는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이다. 본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39.7%가 공부·학업문제를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고민 및 걱정거리라고 응답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17.3%가 교육 및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②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습득하기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14.7%가 언어문제로 인해 크게 고민 및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19.8%가 한글과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③ 외모 및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 간 교육 혹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 본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19%가 자신들의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14.6%가 일생생활 속에서 친구로부터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④ 친구사귀기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30%가 친구사귀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필요하다. 본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6.9%가 인권침해 때문에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3)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유형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다문화가정 청소년 유형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유형별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이민희망여부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외국인으로 보는 응답이 43.3%인 반면에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을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71.4%이었다.

②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한글 및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11.7%로써 1.8%인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③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인권침해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이 7.1%로써 5%인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VI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와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둘째,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며, 다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생활 전반에 걸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 45.7%가 만족하고 있었다.
 -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47.4%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39.7%가 만족하고 있었다.
 - 지역사회생활에 대해서는 34.4%가, 문화여가생활에 대해서는 44%가 만족하고 있었다.
- 2)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 불공평한 대우 및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구로부터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을 57.8%가, 이웃으로부터 외

모로 인한 수군거림과 차별을 69%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64.6%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73.9%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교육 및 공부하기, 언어 습득하기, 친구사귀기, 행동과 가치의 차이, 인권침해 등은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56.1%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56.9%가 자신들의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59.5%가 인권침해 때문에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61.2%가 교육 및 공부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56.7%가 한글과 한국어 배우는 것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45.7%가 친구사귀기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공부·학업문제(39.7%)이었다. 반면에 놀림과 따돌림 문제(7.6%)와 외모문제(6.9%)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5)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낮은 반면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응답은 높게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56.9%가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9.5%만이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37.1%는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26.7%)

과 돈을 많이 버는 것(25.9%)이 자신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미래의 직업으로 전문직(16.4%)과 연예인 및 방송인(12.9%)과 컴퓨터 관련 종사자(12.1%)를 선택하였다.

8)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54.4%가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는 학습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이며, 둘째,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문제이며, 셋째,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문제이며, 넷째, 외모 및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부적응문제이다.

2. 제 언

그동안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대부분은 학교 및 사회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부적응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존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본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의 접근방식 또한 변화가 요구된다. 즉 우리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응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시되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사회에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있어서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여전히 심각한 부적응 문제(사회적 편견과 차별, 언어문제, 친구사귀기, 외모로 인한 놀림과 따돌림, 교육 및 공부하기, 행동과 가치의 차이, 인권침해 등)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개발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부적응 정도 및 부적응 문제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모색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 특성 및 유형별(국제결혼가정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가정 청소년)에 따라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개발은 다르게 접근방법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2006).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 문제와 다문화교육, 국회도서관보 제 43권 제5호 통권 제325호.
- 강상년(2004).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통일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구섭(1999).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만(2003).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다문화가정청소년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지원대책 발표.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2006). 체류외국인 급증, 금년 내 100만시대 열려.
- 설동훈(200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5호 통권 제325호.
- 세계일보(2007.04.24). 아이들 세상엔 '코시안' 없고 '친구'만.
- 우룡(2007).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다문화가족 실태와 청소년정책 방향』,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이성언·최유(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정하성(2002).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통일부(2005). 정착지원과 새터민 현황자료.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6). 한국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제와 향후 방향성.
- 통계청(2006).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부문).
-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한경아(1994). 한국혼혈인의 실태와 문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성렬(2006). 한국문화와 혼혈인에 대한 배타성, 한국청소년상담원.
- Ahn, H. (1999). Juggling two worlds: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eavers, L. & D'Amico, J. (2005).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U.S. and State-level findings from the 2000 Census,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and th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Joice, B. R. & Nicholson, A. M. (1979). Imperative for global education, In J. M. Becker(ed.), *Schooling for Global Age*, pp.95-109.
- Kim Hyunduck(1992). An exploratory study of selected aspects of global understanding in a sample of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Piper, Nicola(2004).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the Politics of Migration in South-East and East Asia." *International Migration* 42(5): 71-97.
- Rifkin, Jeremy(1995).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New York: G. P. Putnam.



부 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청소년지도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소중한 설문지는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 하나 하나가 귀중한 자료이오니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청소년지도연구원(042-255-6227)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2007년 3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사) 청소년지도연구원

설문지 번호			

지역번호	

기관번호	

1. 귀하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에 V표 또는 O표를 해주십시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나 학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이웃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 거린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외모나 이름이 이상하다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놀림이나 수군거림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현재 한국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3. 귀하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는 한국인이다 ② 나는 외국인이다 ③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
④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기 타()

4. 현재 귀하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에 V표 또는 O표를 해주십시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교육 받기와 공부하기(학업 따라 가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언어(한글,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행동과 가치의 차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권침해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의 부모님은 모두 계십니까?

- ① 두 분 모두 계신다 ② 아버지만 계신다 ③ 어머니만 계신다 ④ 두 분 모두 안 계신다

6. 귀하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은 귀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를 한국인으로 본다 ② 나를 외국인으로 본다 ③ 나를 한국인과 외국인 둘 다로 본다
④ 나를 한국인과 외국인 둘 다 아닌 것으로 본다 ⑤ 기 타()

7. 현재 귀하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놀림과 따돌림 ② 공부·학습문제 ③ 친구 및 이성문제 ④ 돈·경제적인 문제
⑤ 대인관계 및 성격문제 ⑥ 직업이나 진로문제 ⑦ 가정문제 ⑧ 사회적 냉대와 무시
⑨ 외모(키, 얼굴, 몸무게 등) ⑩ 언어와 글자문제(말투, 말씨, 한글 등) ⑪ 기 타()

8.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부모님(또는 두 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 ② 부모님과 떨어져 친척집 또는 형제들과 살고 있다
- ③ 할아버지, 할머니(또는 두 분 중 한분)과 함께 살고 있다
- ④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9. 귀하의 아버지의 학력은?

- ① 학교를 안 다니셨다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졸업(전문대 포함) ⑥ 대학원 이상

10. 귀하의 어머니의 학력은?

- ① 학교를 안 다니셨다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졸업(전문대 포함) ⑥ 대학원 이상

11. 귀하의 아버지의 직업은?

- ① 전문직(의사, 교사 등) ②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사무원 등) ③ 공장 및 건설노동자
④ 군 인 ⑤ 연예인 ⑥ 자영업(상점, 식당 경영)
⑦ 농업·임업·어업 ⑧ 서비스업 및 아간업소 관련 일 ⑨ 무직 및 기타()

12. 귀하의 어머니의 직업은?

- ① 전문직(의사, 교사 등) ②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사무원 등) ③ 공장 및 건설노동자
④ 군인 ⑤ 자영업(상점, 식당 경영) ⑥ 서비스업 및 아간업소 관련 일
⑦ 연예인 ⑧ 가정주부 ⑨ 농업·임업·어업 ⑩ 무직 및 기타()

13. 현재 귀하의 가정생활(가족들과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14. 귀하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① 대화하지 않는다 ②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가끔 대화한다 ⑤ 자주 대화한다

15. 귀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16. 현재 귀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나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참여한다 ⑤ 매우 자주 참여한다

17. 현재 귀하의 마을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18. 귀하는 학교 선생님과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①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②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대화한다 ⑤ 매우 자주 대화한다

19. 귀하는 학교 친구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①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②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대화한다 ⑤ 매우 자주 대화한다

20. 귀하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중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놀림과 따돌림 ② 자율학습 ③ 배우는 내용 ④ 특별활동 ⑤ 특기적성교육
⑥ 선생님의 수업방법 ⑦ 친구관계 ⑧ 선생님의 관계
⑨ 학교시설 ⑩ 기 타()

21. 현재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22.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왕따(집단따돌림)나 폭행을 당해 본적이 있습니까?

- ① 없습니다 ② 있습니다

23. 현재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24. 귀하가 문화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과 장소가 부족하다 ② 시간이 부족하다
③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④ 공부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
⑤ 경제적 여유가 없다 ⑥ 놀림과 차별 ⑦ 기 타()

25.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하십니까?

- ① 혼자서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와 함께 ④ 선배나 후배와 함께
⑤ 자신이 소속된 동아리나 단체와 함께 ⑥ 기 타()

26. 귀하가 가장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돈을 많이 버는 것 ②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③ 내 취미와 소질 개발
④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⑥ 순간순간 만족스럽게 사는 것
⑦ 기 타()

27. 원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면 어떤 직업을 택할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사무직(회사, 공무원 등) ② 전문직(의사, 학자 등) ③ 자영업(상점 경영)
④ 서비스업 ⑤ 공장 및 건설 노동자
⑥ 교직(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⑦ 군 관련 종사자(군인, 경찰 등)
⑧ 컴퓨터 관련 종사자(프로그래머, 게이머) ⑨ 예술인(화가, 사진사, 디자이너)
⑩ 체육인(운동선수, 스포츠 해설가 등) ⑪ 연예 및 방송인(가수, 배우, 모델, 아나운서 등)
⑫ 종교인(목사, 신부 등) ⑬ 농축산업(목장, 과수원 경영 등)
⑭ 가정주부 ⑮ 기 타()

28. 앞으로 본국(고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29. 귀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비관적이다 ② 비관적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희망적이다 ⑤ 매우 희망적이다

30. 귀하의 성별은? ① 남 자 ② 여 자

31. 귀하의 연령은? 만()세

32.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기 타()

33. 귀하의 가정의 경제수준은?

- ① 매우 못 사는 편임 ② 중간보다 못 사는 편임 ③ 중간 수준임 ④ 중간보다 잘 사는 편임 ⑤ 매우 잘 사는 편임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과과제 번호 20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발행인 :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편 집 :

전 화 :

발행일 : 2007. 6.

인 쇄 :

ISBN